본 보고서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지리산권(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을 대상으로 2018년~2019년 동안 진행한 주요 사업과 활동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시점은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2020년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현장성에 집중하여 지역 사회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지리산권 활동가와 단체, 모임 등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8-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차례

005 센터 소개

006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소개

007 CI 소개

008 운영원칙

010 주요활동

011 함께하는 사람들

012 사업 소개

013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지역의제 지원사업

014 일반공모 지원사업

015 기획배분 지원사업

016 교육사업

연구/조사사업

017 지리산포럼

019 지역활동 소개

020 구례

040 남원

060 산청

080 하동

100 함양

120 부록

기본현황조사

인포그래픽

142 인사말

센터 소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소개
CI 소개
운영원칙
주요활동
함께하는 사람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소개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2018년 '아름다운재단' 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이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 한국사회의 공익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을 향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이음' 은 협동과 연대,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리산에서 새로운 실험들과 대안적 삶의 가치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두 단체의 뜻이 모여 설립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리산권(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지역사회의 활동주체를 발굴하고 그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공익활동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리산권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작은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① 지리산권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주체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② 지리산권 공익활동 지원 ③ 지리산권 중심의 사람과 활동 네트워크 구축 ④ 지리산권 공익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⑤ 지리산권 시민사회를 위한 인적/물적/지식 기반 구축 ⑥ 기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jirisanchanges.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jirisanchanges

CI 소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씨앗의 나무를 품은 지리산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와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 는 두 개의 가치가 만났습니다. 지리산은 씨앗의 나무를 품고, 푸르게 성장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세상의 작은변화를 나와 이웃과 지역이 함께한다.

아름다운재단의 심볼마크인 씨앗의 나무 그리고 잘 익은 열매를 상징하는 주황색. 지리산이음의 심볼마크인 지리산과 지리산의 숲, 강,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의 철학과 가치, 변화와 행동이 만나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CI가 되었습니다.

운영원칙

전문

한국사회의 돌봄, 인권, 정의에 있어 불균형, 불평등의 문제는 지역격차 속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은 한국사회의 변화가 마을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람과 일상의 작은 변화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지리산이음은 지역사회 밖이 아닌 지리산권 지역사회 안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리산권 시민사회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리산권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역의 활동가들과 주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운영해 나갑니다.

지역사회의 공익을 향상시키는 작은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활동가들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이웃과 마을을 고민하고 돌보는 주민들,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성숙해지는 이웃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공존하고 통합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것만큼,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웃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세대와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는 지역사회에 세대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운영원칙

미션

지리산권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를 만든다

비전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자치와 협동의 공동체 확산

사업

- 지리산권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주체 발굴과 양성
- 지리산권 공익활동 지원
-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사람과 활동의 네크워크 구축
- 지리산권 공익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 지리산권 시민사회 를 위한 인적/물적/지식 기반 구축

핵심가치

- 민주와 투명 :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운영
- 참여와 자치 :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주체의 참여에 의한 지역 자치
- 협동과 자립 :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간 협동과 연대, 사회경제적 자립
- 균형과 공존 : 개인과 공동체, 사람과 생태환경의 균형과 공존 추구
- 사람과 과정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증가와 성장, 성과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 중심

주요활동

2018

3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개소, 지리산권 지역협력파트너 협약식

4월

2018 지리산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6월

2018 하반기 공익활동지원사업(작은강좌, 작은조사)

10월

지리산포럼2018-작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2019

1월

2019 상반기 일반공모지원사업
(지리산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작은강좌, 작은조사)

4월

지리산권 청년 활동 교류회(살래청춘식당 마지)

5월

2019 하반기 일반공모지원사업
(지리산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작은강좌, 작은조사)

10월

지리산포럼2019-작은 변화의 씨앗을 나누는 숲

11월

지리산권 청년 활동 네트워킹 in 팜프라(남해 팜프라촌)

12월

2019 겨울방학 청소년활동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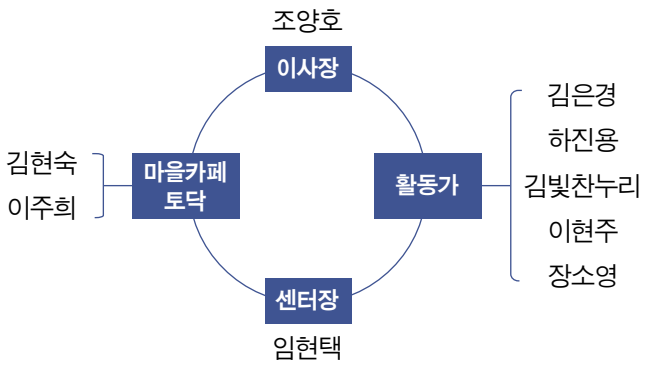
함께하는 사람들

지리산이음

홈페이지
www.jirisaneum.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jirisaneum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지리산권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자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을에서의 배움과 소통,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지리산에서의 새로운 실험과 대안적 삶의 가치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파트너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배분페이지
change.beautifulfund.org

블로그
blog.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를 만듭니다.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하는 공익재단으로,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건강/교육/노동/문화/사회참여와 통합사회/안전/주거/환경 영역의 40여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소개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지역의제 지원사업
일반공모 지원사업
기획배분 지원사업
교육사업
연구/조사사업
지리산포럼

센터사업

지역협력파트너 지원사업

지역협력파트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과 이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활동가들의 연결을 주도하고, 지역 공동의 이슈에 함께 대응하는 등 지역 공익활동을 기획, 실행, 실천하는 주체입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리산권 5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협력파트너의 지역 내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현장성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8-19년 지역협력파트너

구례 정태연
남원 유지선
산청 김병준(2018), 김은영(2019)
하동 이순경
함양 이은진

지역의제 지원사업

지역 시민사회가 지역의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시민사회는 활동가를 넘어 시민,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네트워크가 활동 주체가 됩니다. 지역의제 지원사업으로 지역 의제에 맞는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지역 변화를 만들어 낼 역량을 갖추고 다져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례 좋은 도서관 모임 지원
남원 남원 작은변화 포럼 지원
산청 산청지역 네트워크 활동에 기반한 청년단체 '있다' 지원
청소년 자치공간 '명왕성' 활성화 지원
하동 악양지역 청소년 공간 지원, 하동 작은변화네트워크 지원
함양 함양 작은변화네트워크 지원

일반공모 지원사업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 욕구를 반영한 일반공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의 작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단체, 모임,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활동 목표와 필요에 따라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작은강좌, 작은조사로 구분됩니다. 일반공모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시민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존의 활동 역량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단체와 모임의 공공활동을 위한 사업과 활동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

작은강좌

단체와 모임의 자체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또는 지역민과의 관계망 확장과 지역 이슈 전환을 위한 교육 사업 지원

작은조사

단체, 모임, 개인의 지역 내 의제 설정 또는 공공 활동을 위한 조사 사업 지원

2018년

- 총 32개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12개, 작은강좌 10개, 작은조사 10개
- 구례 2개, 남원 12개, 산청 9개, 하동 3개, 함양 6개

2019년

- 총 33개
-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13개, 작은강좌 14개, 작은조사 6개
- 구례 5개, 남원 6개, 산청 11개, 하동 4개, 함양 7개

기획배분 지원사업

기획배분사업은 지리산권 지역에서 발굴, 성장이 필요한 대상이나 단위 등을 센터와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지리산권 공통의제를 중심으로 지리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운영되었고, 2019년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과 네트워크, 역량 강화와 활동 발굴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

지리산권시민사회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포럼]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지리산생명연대 [NO DAM축제]

2019년

가온누리	지리산 청소년 마을을 담다
작은자유	비전화기술 연구회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준비모임	남원청년, 시민으로 우뚝서기
우악청소년`s	하동 청소년 영상제작단
물음느낌표	청소년 놀카페 빈둥
모하노	“함께하자” 친 청소년 공간 〈모하노〉 프로젝트
하마	명왕성 꿀알바 프로젝트
프로젝트 있다	‘있다’ 프로젝트 『산청에도, 있다』

교육사업

지리산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교류와 자발적 역량강화를 위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는 활동가의 필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떠·꿈(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워크숍(2018~현재)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전파한다' 라는 모토로 조직과 지역사회에서 서로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전파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 새로운 지역문화와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 운영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교육(2018)

공공기관 운영과 업무 현황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일은 지역사회 변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가 정보공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센터' 와 함께 시민교육을 운영했습니다.

미디어활용교육(2019)

활동가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 역량과 교육 욕구를 조사하여 기획, 운영되었습니다. 활동가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미디어 역량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조사 지원사업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시민사회에 통찰력 있는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활동의 물꼬를 트고자 연구,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개별 주제에 대한 기본현황과 실태를 조사,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8 지리산권 청년 기본현황조사 보고서
2019 지리산권 청소년 기본현황조사 보고서

지리산포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구상, 경험과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자리로 1년에 한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9일~11일
세상을 보는 색다른 생각, 지리산에 모이고 잇다

2016년 10월 1일~3일
청년, 지리산에 모여 청년을 이야기하다

2017년 9월 1일~3일
시민사회,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망으로

2018년 10월 6일~9일
작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2019년 10월 3일~6일
작은 변화의 씨앗을 나누는 숲

지역활동소개

- 구례
- 남원
- 산청
- 하동
- 함양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작은변화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해도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것"

"나이에 제한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예를 들면 상시 개방 놀이터, 야간 개방 체육관, 휴관 없는 도서관."

"지리산 내 지자체 프로그램들은 주소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해서 타 지역사람들이 놀러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곳"

구례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다정한 벗이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함께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이웃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타성을 깨는 것, 나날이 진보하는 모습이다.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비상금이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먼 이웃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한발짝-시도라는 행위 자체다.

18-19년 지원사업현황

▲좋은도서관모임

[지역의 좋은도서관을 위한 기초 만들기]

▲담백

[구례에서 지구인으로, 여성으로 신명나게-퍼머컬쳐, 상상해봐요]

▲북시터공부모임 '책노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북시터 교육]

▲폐교를 깨우는 모임

[구례 다무락 마을 폐교 활용을 위한 조사]

▲구례다움연구회

[지역맞춤형 청년이주 지원 프로그램 조사]

▲반달곰친구들

[생태통로와 로드킬 조사를 통해 본 야생동물 길의 현실]

▲구례살림연구회
[우리동네 예산 들여다보기]

구례

#인구27,000명_인구소멸위험
#한부지_두도서관
#토목개발
#예산감시활동
#퍼머컬쳐
#좋은도서관모임

“지역협력파트너로 구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구례 지역협력파트너_정태연

까무잡잡한 피부, 동그랗고 맑은 눈. “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인상적인 정태연님. 그는 구례 지역협력파트너로 2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숨이 늘었다. 지역에 새로 생길 도서관이 바로 그 이유다. 구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정태연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례

우선 정태연님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고향은 전라도 나주고요. 서울에서 살다가 구례로 와 살게 된 건 12년 되었습니다. 구례로 오기 전까지는 주로 정당활동을 했습니다. 구례에 와서는 섬진강과 지리산 관련 일을 했어요. 수달생태관에서 생태해설을 했고, 지리산학교에서 7년 동안 걷기반을 운영하고 교사대표도 했습니다. 2012년에 섬진강을 걸어서 종주한 뒤, 2013년경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섬진강 문화생태탐방로' 만드는 일을 2년간 했고, 2015년부터는 지리산과 섬진강,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잇는 '한섬지 천리길' 사업의 기획단장을 맡아 3년간 일했습니다. '지리섬진탐사반' 이라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며 5년 동안 아이들과 지리산, 섬진강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생명평화의 땅-청소년 구례 걷기' 를 10년째 같이 하고 있고, 구례지역 결식 청소년들을 위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했어요. 지리산권의 계간신문인 '지리산인' 의 편집위원이자 편집간사로 9년째 함께 신문을 펴내고 있습니다. 2016년 '구례신문' 을 창간하고 잠시 편집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구례의 지역협력파트너로서 지역의 작은변화들이 우리의 더 나은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구례의 지역이슈는 무엇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구례 자체로 보자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소멸의 위험성이 늘 있는 편이어서 인구수 3만 회복이 구례군의 지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거의 전무해서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지자체장을 한 정당 소속이 독식하다 보니, 군의 정책과 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와 상관없이 기획, 추진되어 나중에는 아무런 용도 없이 놀고 있는 유휴 공공시설이 넘쳐납니다. 예산감시활동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구례읍내에 있는 두 도서관이 한 부지로 신축이전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지켜보기 위해 만들어진 '구례살림연구회' 는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구례군과 도교육청, 구례교육지원청의 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를 중재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내오기 위해 움직이면서, 도서관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응을 위해 '좋은도서관모임' 이라는 주민단체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례군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구례군 내부에도 주민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기관과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바가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협력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나요? 그리고 주요하게 활동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제안을 받았을 때 일단은… 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느낌이었고, 센터나 '아름다운재단'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만 반 년 정도 걸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을 지나면서는 다행히 센터나 각 지역의 협력파트너 분들과 생각을 맞춰갈 수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지역협력파트너로 구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일이죠.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대응합니다. 예를 들면, 구례의 유일한 대규모 생산시설인 (협)아이쿱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고 구례의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활동하는 것 등입니다. 생태통로 문제도, 도서관 신축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일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맺어지는 단체나 개인들, 결국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어렴풋이나마 '작은변화'의 끈으로 연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협력파트너로 센터가 지역사회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이나 지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재정적 후원자로 역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이 든든한 후원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나아가, 이제 각 지역의 주민모임 등이 한 단계 더 내딛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일상화하고, 좀 더 치밀한 (온·오프)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일상적인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지역에서 단체들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러면서 그런 모임들이 모여들고 또 흩어지는 구심점 또는 '허브'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위상을 가져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상으로 진화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요.

정태연 님이 생각하는 지역의 작은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주민들이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을 터이지만, 조금 더 공익적인, 지역사회 전체의 안위와 관련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만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그룹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그룹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 그것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야만, 큰 변화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냥 확 갑자기 들이닥치는 큰 변화 말고 '튼튼한' 큰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좋은도서관모임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많은 변화가 있던 한 해였어요.”

좋은도서관모임_강은경

인터뷰 진행/정리 정태연

구례에 온 지 10년이 된 강은경 님은 올해 좋은도서관모임에 결합하여 총무직을 맡고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사회활동은 쉬다시피 한 그녀지만 학교 학부모회, 마을도서관 도우미 활동으로 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권유로 도서관모임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좋은도서관모임은 한 부지에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과 구례군 산하의 공공도서관이 같이 지어지는 지역 현안으로 생겨난 모임이다.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도서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모여 도서관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며 도서관 현안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다가 도서관 현안을 계기로 좋은도서관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례의 도서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례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매천도서관과 교육청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두 도서관이 중앙초등학교 옆 부지로 한꺼번에 신축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구례군과 교육청에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 부지 두 도서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계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었지 않을까 하며 위로하고 있달까요.

처음에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모으셨는지요? 이후 진행과정도 설명해주세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모임의 초기 멤버가 다섯 명 정도 있었고요.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문제를 알리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연과 주민설명회를 2월에 열었어요. 이 때 거의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서 힘을 받았죠. 그 후에 구례군이 주민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월에 군과 교육청을 초청해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는데, 군에서 새치기해서 주민설명회를 같은 장소에서 낮시간에 해버렸어요. 설명회 참석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 부지, 한 도서관'을 제안하기로 결정하고 설명회에서 한 목소리로 줄기차게 요구했어요. 군수와 교육장은 부지 문제를 이제 와서 돌리기는 불가하다고 했지만, 설계와 시공, 운영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설계사분이 주민들을 오늘 처음 만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용자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에서는 한 부지 두 도서관을 계속 고집했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하여 모임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결국 양보하여 한 부지 두 도서관을 용인하되 이후 설계와 시공, 운영의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두 도서관이 공간과 예산 배분에 있어 낭비가 없도록 유기적인 통합설계가 진행되기를 촉구했습니다. 당시에는 군수와 교육장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통합설계를 하는 것에 무척 긍정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고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4월말경 군수가 통합설계를 거부해버렸지요… 우리들도 무척 숙련되지 못했던 것 같고, 관쪽을 순진하게 믿어버려서 너무 아마추어가 아니었나 싶네요. 속상해요~(눈물).

앞으로 좋은도서관모임의 미래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관과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유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쉽지 않겠지만 11월 작은변

화의 시나리오 사업이 종료되면 그런 일들을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 미디어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어떤 활동을 하셨고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센터에서는 지리산권의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 덕택에 상반기에는 '책노리'라는 북시터 모임에서 작은강좌 사업을 했어요. 도서관 등에서 아이들과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고 때로는 강사를 초빙해 공부도 하고요. 하반기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진행했는데요. 하나는 조사사업으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은 도서관 문화가 풍성한 다른 지역을 탐방하고 배우는 것이고요. 셋은 지역 도서관운동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강좌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회원들의 고혈(?)을 짜내지 않는 이상은 멈칫거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의 걱정을 많이 덜었죠. 센터가 지리산권에서 진행한 여러 사업과 강좌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신선했고 도움이 되었어요. 구례에서도 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풍성해지고 있다고 느껴요. 작은 소모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것도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센터의 사업이나 관계에서 아쉽거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없나요?

소모임에 대한 지원이 금전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보와 교육에 대한 공유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남원지역에 재활용에 대한 소모임이 있던데, 그런 문제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서로 힘이 되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청소년 쉼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막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종의 허브 역할이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강사를 연결시켜 주는 등 교육활동도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지역의 활동가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활동가라기보다는 역량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은경 님이 생각하는 지역의 작은변화는 무엇인가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마을 안에 그런 부분이 자리를 잡으면 일자리도 연결이 되고 청년들도 돌아오고 육아의 문제도 서로 돕고 하다보면 지역에서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을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지역에서의 삶이 더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마을일을 하고 지역에 대해 깊이 고민할수록,
주변 이웃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무락마을_이민정

인터뷰 진행/정리 수수

구레

"구례에 온 지 3년 된, 산이 엄마라고 소개하면 되나요?"

'살그래 핀 풀꽃' 이라는 유곡마을 카페사장님이었고, 마을학교 활동가이기도 하며, '좋은도서관모임' 홍보물과 마을 행사 웹자보를 제작하는 디자이너인 민정님의 자기소개 치고는, 너무 간단하다 싶었다. '구례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 듣고 싶어요'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긴 이야기가 꼬리를 문다.

"구례 오기 전에는 서울 서대문에서 청년 창업팀 인큐베이팅 하는 일을 했었어요. 1년 반 정도? 그 당시 서울에선 청년 창업지원이 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계가 많았어요. 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청년들을 착취하는 구조랄까. 청년당을 만드는 일도 잠시 함께 했네요. '함께일하는재단' 에 노조가 생겼다는 이야길 듣고서 반가운 마음에 뭐라고 함께 하고 싶어서 재단에서도 일하고…"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일과 같이, 민정님은 서울에서도, 또 이곳 구례에서도 새로운 싹을 틔우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마을 폐교를 살리는 마을 사업일이라던가, 구례여성모임 '담백', '땅꼬랑' 등등.

"담백 멤버이고, 땅고랑 멤버기도 하고, 퍼머컬처 멤버기도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많네요. 하하하. 그런데 원래 제가 꿈꾸었던 삶의 영역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 이라는 개념도 그렇죠. 걸어 다닐 수 있는 반경, 딱 그 정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마을 일하면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지역' 은 유곡마을 정도로 느껴졌어요. 그래서인가 구례읍(구례군)이라는 '지역' 과는 자연스레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계도 느껴졌어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부딪힘이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유곡마을 일을 11월로 마무리하려고요. 12월부터는 육아와 돌봄 일을 하면서 '구례' 라는 지역을 다시 느껴보려고 해요. 특히 '좋은도서관모임' 활동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례에서 이런 '시민' 운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에너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이 외에도 용방면에서 하고 있는 생태놀이터에 대한 고민이랄지 지역 마을학교들에서 하고 있는 생태교육 등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물론 유곡마을 안에서 관심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마을 일 하고 나서 가장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무락-유곡마을의 다른 이름- (폐교)운영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을 의사결정구조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발언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의 남녀노소가 다 섞이게 되요. 또 귀촌민과 선주민도 섞이고요. 당연히 회의 분위기가 전과 다르게 바뀌죠. 마을엔 역시 여성들 힘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다고나 할까요? 마을과 구례 지역 차원에서 여성과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잘 잡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 민정님은 지역 여성들이 만들고 펼치는 조사사업이나 강좌사업들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운영했다. 여성들의 힘으로 마을과, 지역공동체를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민정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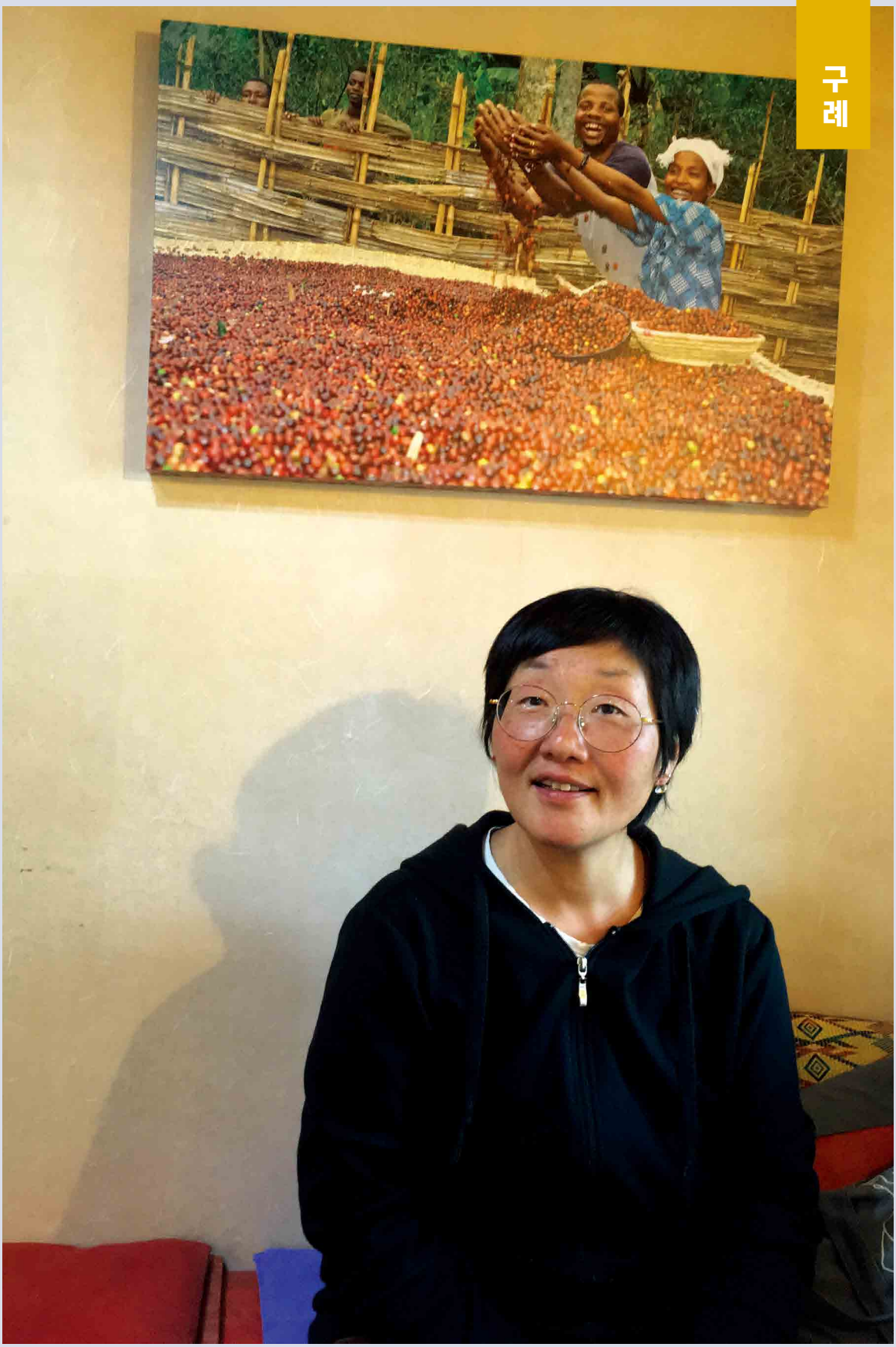
"마을 일 하다 보니, 더 알겠더라고요. 여성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주여성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요. '자꾸 놓치게 된다.' 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제 느낌엔 구례에선 부재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지역에 대해 깊이 고민할수록, 주변 이웃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좋은 파트너가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좋다는 거죠. '제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똑똑 문을 두드리면 답을 해 줄 수 있는 지역 코디네이터나, 담당자가 더 강화된다면 - 이 일에만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더 좋겠어요. - 든든할 것 같아요."

“모든 생명들이 사는 삶의 공간, 그 기반을 충실히 지켜가고, 지역에서 모아진 정보, 네트워크, 선세대의 지혜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담백_수수

인터뷰 진행/정리 쭈이

수수는 많은 이야기를 담은 얼굴을 하다가도, 눈꼬리를 늘어뜨리고 웃어버리면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순한 웃음만 남는다. 그녀가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든 ‘담백’ 이란 모임처럼 담백한 웃음이다. 인터뷰는 내내 조용조용한 그녀의 목소리를 듣다가 끝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수수한 사람이라니...! 같이 산다는 것, 나눠주고 나눠받고, 그 연결이 지역사회에 퍼지는 것. 수수와 부르던 노래와 닮았다. 평화와 자연, 생명을 담은 그 노래들을.



이곳에 연고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례와 인연을 맺었나요?

구례에서 뭘 하겠다는 작정이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산청에 살았을 때도 인연 맺은 분들 따라 '목화장터'라는 곳에서 노래도 불렀다. 그곳 분들이 동파된 보일러도 고쳐주셨고, 살림세간도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인연 맺고 도움 받은 분들에게 보답을 하는 게 활동처럼 보이나 보다. 저를 공동체나 지역에서 돌봐줄 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 싶다.

담백이란 모임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내나요?

담백은 재작년 겨울인가? 작년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시작은 애매하다. 처음에 동네 알고 지내던 '민주'님이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모임 어때요?"한 이야기로 구례 사는 몇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자신의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수다모임으로 시작했다. 때가 맞으면 매실도 따고, 어린이집 문제도 이야기 나누고, 어디 애들 보낼 곳이 없나 하소연도 하고, 이곳에서의 한계에 대해서도 토로하고… 담백이란 이름은 작년 말에 지었다. 땅고랑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 '활동'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담백이나 땅꼬랑 같이 동네 작은 모임들을 알게 된 사람들과 간간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러다가 뭔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르면 같이 해보는 것들이 공공성을 지니게 되면 '활동'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느껴지는 것 같다.

담백이란 모임으로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퍼머컬쳐 활동을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그 활동을 시작했나요?

구례라는 곳으로 왔을 때에는 다른, 막연하게나마 대안적 삶에 대한 기대, 바램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재밌고 의미 있게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 방향이 궁금한 사람도 있고, 대안농사에 고민이 있는데 혼자하려니 여의치 않은 것도 있었고. 퍼머컬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에너지가 모임 안에서 있었다. '그 욕구들이 괜찮겠다, 재밌겠다'라는 반응이어서 시작했다. '키홀 가든 만들기' 실습이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구례 퍼머컬쳐 상상해봐요'란 결과 책자물도 만들어졌다. 이후 퍼머컬쳐를 더 공부하자며 스터디 모임도 생겼고, 워크숍으로 담백이 아닌 구례 지역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었다.

워크숍이나 담백 모임을 땅꼬랑이라는 공간에서 했는데요. 땅꼬랑. 이름도 무척 귀여운데,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땅고랑은 올해 2월에 생긴 공간이다. 담백은 친목모임에서 시작했는데 공간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 공간으로 사람들의 꿈이나 희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자조모임도 생기고 임파워먼트도 생겼고 거기에 공간이 생기니 공공적인 것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 단위 이상의 공동체들이 결합해 몇 개의 그룹이 되니 공간이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땅꼬랑은 현재 더 이상 쓸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빈 공간을 무상대여 받아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버렸다. 공간이 있다 없어지는 것은 파장이 있다. 공간이 없던 모임에서 임파워먼트와 관계에 집중했다면 공간이 생기면서 많은 이야기와 상상이 속도가 붙었다. 땅꼬랑으로 외부지원사업을 받게 되었는데 공간 베이스로 뭔가를 하려던 것이 이래저래 꼬이게 되면서 난항도 겪었다. 이제 공간은 없어졌고 그 안에서 있었던 모임들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남았다.

공간이 없어지면서 아쉬움이나 파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남았을까요?

다음 모색을 위한 긴 숨이 필요하게 되었다. 땅꼬랑이라는 공간이 없어지면서 그 안에서 있던 담백, 퍼머컬처, 땅꼬랑 이 세 모임들이 각자 스스로들에게 생각과 질문들을 하게 되었다. 지리산인이나 지리산사람들처럼 단체가 있는 곳에서 운영위원이나 편집위원을 그만두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땅꼬랑 안에 모임은 처음 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모임을 반기는 분도 있었는데 1년도 안되어 없어졌을 때 아쉬움도 있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람살이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구례에서 살면서 지역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나요?

땅꼬랑을 비롯한 지역의 작고 새로운 모임들에게는 지역 자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접근할 수 있다면 좋겠다. 더불어서 가난한 누구라도, 장애와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한글이나 한국어가 어려운 어떤 사람이라도, 나이가 어려서 혹은 많은 어떤 이라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나이와 장애여부 뿐 아니라 국적, 인종, 섹슈얼리티 등 많은 면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사는 이웃들이, 자유롭게 서로를 알고 또 적절한 속도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 일상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 사람이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물리적 토대 같은 걸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지구의 기후위기는 지역차원에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고, 소비하는 마치 게임 속에 있는 목적성 있는 공간이 아닌 모든 생명들이 사는 삶의 공간. 그런 기반들을 충실히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이나 의견이 있을까요?

지난번 땅꼬랑에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 좋았다. 뜬금없는 팔로워업이랄까? 목적하지 않고 계속 봐주는 것. 그렇게 안부나 소식을 전해 듣고 받았으면 한다. 음…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이 특화되었으면 좋겠다. 탈학교 혹은 독립한 10대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좋을 것 같다.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작은변화는?

"이사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마을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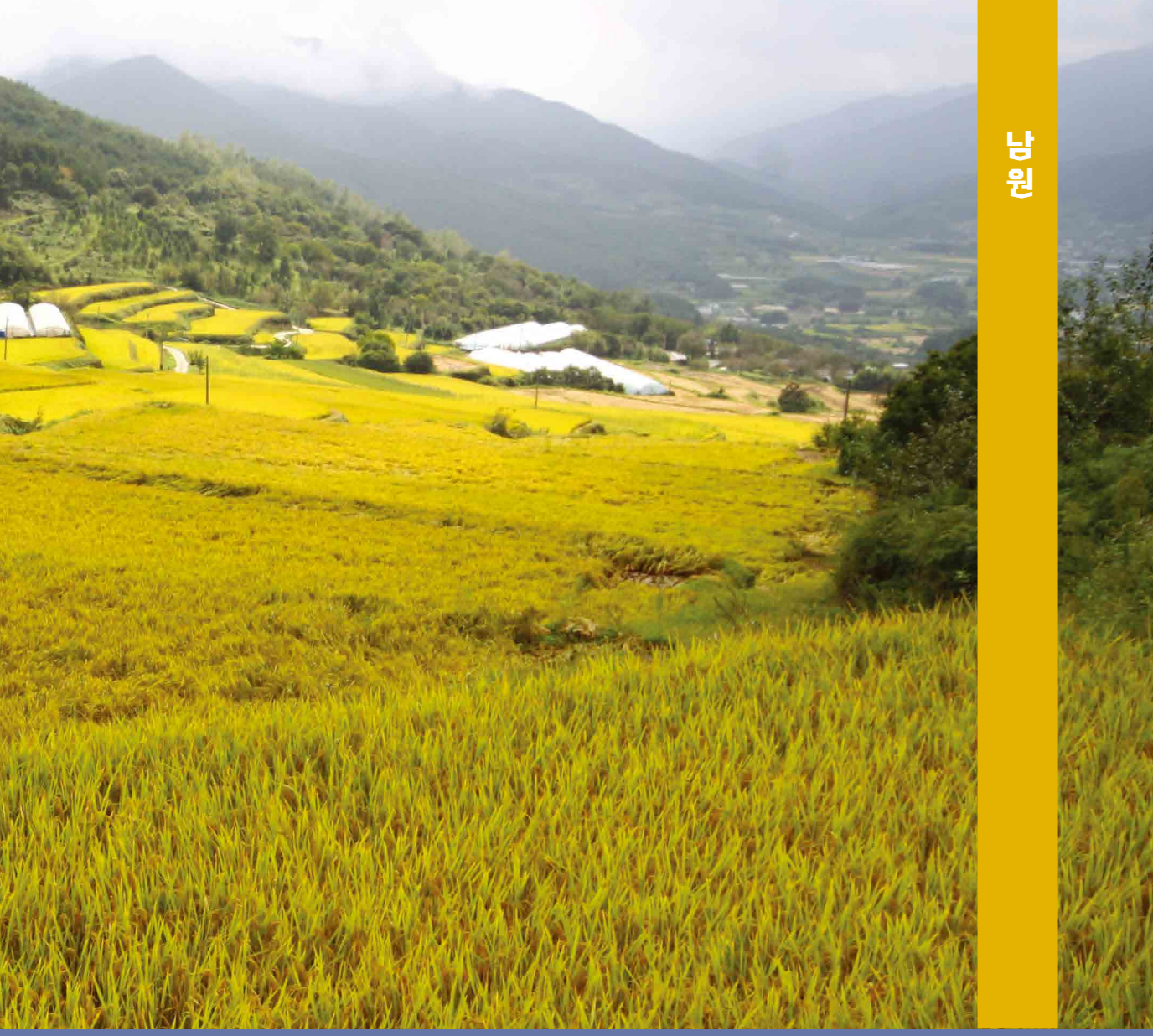
"평화가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마을의 대소사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인데 이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배제되는 그런 관행과 습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주말에 아이가 아프면 갈 수 있는 소아과"

"더 이상 살 곳이 없어 친구들이 떠나지 않는 마을"

"아침에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없는 마을"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든든한 백이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제2의 고향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시야, 생각의 폭, 넓이를 넓히는 작업이다.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위안이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한숨 나오지만 계속 살고 싶은 동네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친구다.

18-19년 지원사업현황

남원

#8만인구_진학이주
#일자리_청년
#시민모니터단_봄
#청년활력기금
#남원작은변화포럼

“남원의 변화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남원 지역협력파트너_유지선

결혼하고 남원에서 가정을 꾸린 유지선 님은 아이 셋을 남원에서 낳아 키우다가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이하 생협)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생협을 통해 성장과 협업, 노력과 결실의 기쁨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를 맛보았고 그 원동력으로 지역협력파트너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남원의 18개 시민단체 네트워크 모임인 ‘남원 작은변화포럼(이하 작은변화포럼)’의 대표도 겸하고 있고, 올해 시작한 시민모니터단 ‘봄’에도 적극 참여하며 남원시 시민사회 활동에 새로운 활력과 구심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원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서울이 고향이고 결혼하면서 2000년에 남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남원에서 아이 셋을 낳고 키우고 그러다 2008년부터는 생협 활동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생협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활동할 때는 생협이 갓 창립을 할 때라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조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열정 하나로 버텼지요. 특히 2010년에는 매장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오픈하기까지 1년 동안 거의 생협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고 열심히 했던 활동이 매장 오픈으로 결실을 맺었고 10년 동안 생협이 성장하는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성공을 맛보았고 저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꿈꾸는 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만나고 지역협력파트너로 활동하면서 남원의 18개 단체 네트워크인 작은변화포럼을 만들고, 의회모니터단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도 생협 활동에서 얻은 에너지 덕분인 것 같아요.

현재 삶의 공간이자 활동의 바탕인 '남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원은 '시' 임에도 인구가 8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겨울방학이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때 전주나 광주로 이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일자리도, 젊은이도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뺀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 한 정당입니다. 정책이나 시정을 견제할 세력이 없는 거죠. 또 작은 도

시가 그렇듯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던가, 뭔가 바꾸려 할 때도 얽히고설킨 관계들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남원은 아름다운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제 시작이지만 남원의 변화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지역협력파트너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느낌이나 소감은 어땠나요?

10년간 활동했던 생협 일을 정리하면서 어떤 활동을 시작할까 고민하던 중에 지리산이음과 아름다운재단과 연결이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협력파트너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지역협력파트너'란 이름의 '지역'이란 말이 저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남원을 대표하는 활동가가 나 혼자라는 느낌이 있었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점도 두려웠습니다. 반면, 센터가 있어서 '온전히 나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처음'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안을 받아들였죠.

현재 지역협력파트너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은 작은변화포럼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은변화포럼은 남원의 18개 시민단체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시민모니터단 '봄'도 운영하고 있구요. 18개 시민단체들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교육, 문화, 청년, 농민, 친환경먹거리, 동학 등등.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작은변화포럼 이름으로 모였을 때 다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기로 했고, 그 일의 시작이 의회모니터링이었습니다. 의회모니터링은 저희도 처음이었지만 시의회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다행히 의회와 관계맺기가 잘되어 운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의회 때는 18개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당번처럼 스케줄을 정해서 의회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변화포럼으로 2019년 12월에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작은변화포럼의 날을 정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보고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가 지역과 지리산권에 어떤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역협력파트너로 활동하는 2년 동안 모든 활동과정에서 함께 목표를 세우고, 기획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활동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할은…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을 알아보고 키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에는 시대적 고민을 치열하게 했고, 남원으로 이주해서는 아이들 키우며 남원이 고향이 되었죠. 제 고향이 된 이곳을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모니터단 ‘봄’_권영애

인터뷰 진행/정리 유지선

지역에서 행정에 필요한 역할, 각종 위원회나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권영애 님. 인터뷰에 그동안 지역사회, 시민사회, 행정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지역과 행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이야기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다.

본회의장

지역 활동, 시민사회 활동을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원 생협에서 활동을 한 10년의 시간,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과 밀접한 '친환경'을 토대로 사람을 만나고 '협동조합' 이라는 정신을 확산하는 활동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좀 더 나은, 관계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이 있고 현재도 그런 방식의 관계와 실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협에서 활동하던 기간에는 그 활동에만 집중했지요. 전망이 있고, 대안이 가능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협동조합 정신을 확산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시정자문위원, 축제제전위원, 보조금심의의원회 등 활동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시민공감은 설립 때부터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남원 시민모니터단 '봄'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문제점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첫째는 행정, 즉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는 정책과 사업이 실행되는 곳이죠. 거기서는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견고해서 새로운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관철시켜 정책을 만들고, 시민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갈등 조정도 많이 부족하죠. 시민사회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카르텔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이익들을 관철시키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과 달리 시민사회는 얼마나 성장해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시민사회는 사회에 관심이 덜한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변화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 여력, 실천력 모두 떨어지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활동이나 이슈에 대한 합의 과정, 진행에 필요한 로드맵들을 합의해서 뭔가 실천하고자 할 때 열려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열려있는다는 것은 포용성을 말하는 건데 아직은 시민사회가 완고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개선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 작은변화포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저한테는 있는 거죠. 그 두 측면이 제가 남원 작은변화포럼에 몸을 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남원 작은변화포럼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직,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지요. 지역사회에 센터가 생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남원의 시민단체들이 각자 갖고 있던 지향들이 달랐고 함께 모여서 뭘 해볼 계기가 없어 모여본 적이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만나서 뭘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센터에서 실무적인 뒷받침들을 많이 해줬어요. 예를 들어 기획, 돈, 사람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꿈꾸던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실천의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들죠.

센터는 제가 생협 이사장으로 있을 때 만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 만났겠지요(웃음). 하지만 취지가 맞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겠죠. 어쨌든 지역에서 작은변화가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관계맺기가 잘 되었고 센터도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지역의 작은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주적 소양을 갖는 것. 민주적 소양은 합리성, 상식, 공익을 말하는데요. 서양의 나라들이 합리성과 민주주의를 배웠던 근대시기를 우리는 겪지 못하고 뛰어넘었어요. 근대시기 없이 바로 싸워서 얻은 민주주의를 80년대에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 소양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리성, 열려있는 마음, 관용, 포용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절실할 때입니다. 네트워크로 모인 작은변화포럼에서부터 민주적 소양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청년 전담 부서가 생기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는 것,
청년들을 시민의 주체로 봐주는 것,
이런 것은 다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이런 활동을 함께 하는 청년들이
늘어가는 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남원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_서진희

인터뷰 진행/정리 김양오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이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만족과 실효를 얻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청년들은 외떨어진 섬들처럼 생존을 위해 파도와 바람을 견디고 있다. 남원의 청년 모임을 주도하며 청년들과 재밌게 함께 살기를 원하는 서진희 님을 통해 청년들 바람과 현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CENTURY
SPICE ROAD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원에서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이하 놀자)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서진희입니다. 2012년 남원으로 이사왔구요. 이곳에서 영상작업을 하는 '보이고' 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모임을 하면서 여러 청년을 만나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놀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온누리 신협에서 공간 활용을 제안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놀자'는 다섯 명이 시작했고 현재 조합원은 아홉 명입니다. 조합원은 아니어도 우리와 함께하는 청년은 더 많은데요. 청년들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조합원을 모집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잘 운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놀자랩(Lab)' 인데 랩(Lab)은 연구소, 실험실, 작업실이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놀 것인가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진희 님도 그렇고 '놀자'라는 공간도 그렇고 청년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청년 활동들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놀자'를 중심으로 청년모임을 월 1회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각자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열 명에서 스무 명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모임 중간중간 더 많은 청년들을 초대하는 혼술파티, 혼밥파티 같은 것도 했는데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남원 맛집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옥상 파티를 했는데 그때는 4, 50명이 모였고, 카페를 빌려서 밤새 춤을 추는 클럽 파티에도 많은 청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원 마블' 이라는 남원을 배경으로 한 보드게임 두 개를 제작했고, '시골보고서' 라고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과 다른 일을 하는 청년들이 콜라보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남원 지역에 맞는 청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활동의 목표입니다. 전국이 청년 일자리 이야기를 하는데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만 있다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놀거리, 놀 친구들이 있어야 하죠. '놀자' 에서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청년이기도 하고, 청년모임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소문이 인터넷만큼이나 빠른 동네에요. 어른들이 먼저 묻는 게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입니다. 남원 출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튀는 것, 혁신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청년에게 지원해야 하냐?' 에 부딪치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만든 것에서 늘 착취대상이 되어 왔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성세대의 틀을 바꾼다거나 늘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남원시는 그런 청년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듣는 것은 같은데 정작 청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반응입니다. 시에서 청년 협의체도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스텝이 없어요.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여러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센터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해줬으면 하나요?

남원 작은변화포럼에 참여하는 것은 '놀자' 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고 남원 청년정책 네크워크도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 청년 인터뷰를 맡게 되어 다른 지역 청년을 만날 수 있었고, 도시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도 있는데 이 모임도 센터 공모사업 중 작은강좌 지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각 구마다 청년공간이 있어 작은 모임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모임이 단계를 잘 밟아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비영리단체만 지원이 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센터가 지리산권 각 지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식을 외부에 드러내 주고 우리도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비영리가 아니어도 활동의 목적이 비영리라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온 구조 안에서 고통 받는 세대에 대한 책임감의 차원에서 청년활력기금이 시작되었다고 들었다. 청년들이 지속가능하게 살기 위한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수혜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작은자유_상이

인터뷰 진행/정리 쭈이

상이 또는 이내와 산내에서 오가며 가벼운 목례만으로 인사를 대신하던 때. 그 즈음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마주친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즉각 서로를 얼싸 안았다. 지리산 산자락에서 낯설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허물없이 포옹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청년들을 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남원

상이란 이름이 특이한데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내라는 별명을 쓰다가 상이로 바꿨다. 원래 코끼리를 좋아하는데 코끼리 상(象)자에서 가져왔다. 코끼리는 생긴 것도 멋있고 모계사회를 이루면서 산다. 할머니 코끼리가 무리를 이끌고 돌본다. 불교에서는 코끼리가 지혜를 상징한다.

작은자유로 남원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작은자유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산내에 왔을 때 이곳에서 쉬었다 가야지란 마음으로 친구 없이 지냈다. 그러다 인드라망 대학에서 에스페란토 수업이 있어 청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 수업으로 만난 소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시골쥐, 도시쥐 느낌으로 시골 청년 모임으로 같이 밥 먹는 거라도 해보자고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을 아는 주변 어른들이 이곳저곳에 청년들을 알려주면서 또래를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친구들과 기본소득 상상 시나리오 공모전에 공모를 하게 되었고 상금도 받았다. 이 상금으로 친구들과 더 풍성하게 작은자유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고, 지속가능한 산내살이를 고민해보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내살이를 위해 주거, 문화, 정책 등 다양한 고민이 있었지만 특히 일자리가 큰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동네삼촌인 아신이 식당 자리가 있는데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으로 2015년 마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살래청춘식당 '마지'가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그 과정도 궁금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마지는 산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최대치의 경험인 것 같다. 각자의 전문분야가 없던 때였고, 친구관계에서 일관계로 변화도 겪었다. 마지의 식당일과 작은자유 활동에 대한 균형, 친구와 일 관계의 변화지점에서 혼란을 겪었고, 다른 것을 모색할 수 있는 여유마저 없었다. 여러 이유가 맞물려서 그만두게 되었고, 마지가 마무리되면서 함께한 청년들이 산내를 떠났다. 산내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삶을 꾸려가기에는 인프라가 적은 곳이다. 떠난 청년들은 마지를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욕구와 활동의 연장선으로 떠난 것 같다. 식당 문을 닫았지만 마지는 청년공간으로 남겨두었다. 마지 문을 닫고 나서는 페미니즘으로 지역의 청소년과 만나는 작업을 함께 했다. 작은자유 구성원에게 평소에 페미니즘을 더 삶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고민이 있었고 지역에서 더 많은 동료를 만들고 싶었다.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라는 제목으로 행복중심생협에서 모임지원사업을 받아 진행했다. 1년 여간 7명 남짓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했고, 올해는 새로 산내에 들어온 청년들과 후지무라 야스유키 센세의 '3만엔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비전화기술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있다. 회 모임을 하고 있다.

'마지'를 끝냈을 때 상이는 어땠는지 그 이후 어떤 변화와 활동이 있었나요?

나 같은 경우는 마지를 끝내고 6개월 정도 쉬면서 펑펑 놀았다. 다른 지역 청년들은 어떻게 사나 보기도 하고, 청년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하지만

동료들과 마지가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우울했다. 겨울마다 가는 집중수련 명상을 하면서 마음도 다스리고, 남원시에 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기는데 그곳에서 청년활동도 지원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지원을 했다. 현재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산내와 남원에서 청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고, 남원시도 마찬가지다. 남원시의 청년으로 그리고 청년모임을 하는 일원으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청년들은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살고 싶지만 난관이 많다. 청년이 도움이 필요한 것 사실이지만 그 도움의 형태가 복지나 수혜가 아니라 청년을 사회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만들 때 좀 더 청년과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도 청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2017년부터 지역에서는 '지리산 청년활력기금' 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귀농귀촌한 선배세대가 청년세대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적 구조 안에서 청년이 고통 받고 있다는 책임감의 차원으로 시작된 기금이다. 그 취지에 지리산 이음과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도 공감하며 함께 진행해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이런 일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지역에서 기금과 청년에 대한 여러 말도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 기금을 받은 청년 대부분이 아직 산내에 남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 활동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지원에서 멈추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선배세대가 목소리를 내야하는 순간이 분명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평등하지 않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청년세대 혼자서는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워크숍을 하는 등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질문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지역의 작은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 것. 산내든, 남원이든, 지리산이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작은변화는?

"서울로 가야만 성공이라고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것"

"다시 돌아오는 고향"

"여성인 내가 안전하게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청소년이 다양한 교육,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좋다는 신념을 믿을 수 있는 사회"

"마을의 발전을 위해 성별과 노소에 상관없이 토론할 수 있는 협의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담고 싶은 친구이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치열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위해 내 욕구를 잠재울 시기임을 깨달은 것이다.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숨을 쉬게 하는 미풍 같은 존재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한눈에 반한 애인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사람과 같이하는 것,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18-19년 지원사업현황

산청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귀농,귀촌_원주민_어울림과 공동체
#목화장터
#어린이_청소년
#청소년공간_명왕성_모하노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개인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시민과 모임이 늘어나는 것이
지역의 작지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산청 지역협력파트너_김은영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산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살다 둘째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져 친정 부모님이 귀촌한 산청에 2009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사는 곳이 아파트가 아닌 것도 처음인 도시토박이였죠.

아이의 아토피로 시골생활을 시작하며 행복한 삶이 무언지 고민하게 되었고, 아이의 병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마을에 아이들이 제 아이들뿐인 것을 보며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청소년교육학을 공부했고, 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잡지 민들레 읽기모임을 인연으로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명왕성 공간 마련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했었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심이 있다보니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 이슈를 접하는 경험도 많아지고, 관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젠가 산청도 성미산 같은 공동체가 자리 잡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런 계기들이 활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요?

이곳에 오고 나서 환경, 공동체, 교육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고민들이 학부모 네트워크, 교육잡지 민들레 읽기모임,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 코디네이터 등을 통해 제 생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에는 지리산 작은변화지

원센터 작은조사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 19년 5월부터는 매월 팝업놀이터를 운영하며 놀이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유부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컬푸드매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파트너로 산청의 이슈와 특징, 지역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역의 교육 혜택이 고르지 못해서 오는 갈등이나 지역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적극적인 곳과 그러지 못한 곳의 차이,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형성한 마을 공동체 등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이슈와 갈등,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지난 2년 동안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고, 협력파트너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청년모임 공간 '있다'와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 청소년 친화공간이 된 대안공간 '모하노'를 보면 마땅히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없던 지역에서 이런 공간과 공간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것이 지역사회와 지역민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님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지역에서 센터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센터는 '시민사회'라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걷는 정도까지의 '보육'을 담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불만을 '무엇을, 왜, 어떻게, 누구와'로 생각을 확장하고 모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시작을 지원했습니다.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란 단어가 낯설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모임이나 활동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정도의 지원은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민이 모여 '활동'을 하고 '단체'를 만들고 '운영'이 낯설지 않도록 행정, 경영, 회계, 교육 등의 지원도 지역에서는 필요합니다.

지역의 활동가로, 센터의 지역협력파트너로 지역에 필요한 작은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이곳도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나 뭐든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지점도 생기고 있고요. 하지만 지방선거와 지역사회의 여러 움직임들 그리고 센터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모이고 있고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개인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시민과 모임이 늘어나는 것이 지역의 작지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작은변화는
평소 주목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여성처럼
지역에서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하노_유훈정

인터뷰 진행/정리 김은영

mohano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결혼 전부터 자연 안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남편과 산청의 성공회 성당에 왔다가 정착을 결심했다. 이제 산청에 거주한 지 6년 되었다. 지역에서 개인이 소유한 100여권 정도의 책을 기부를 받았는데 책에 대한 관심으로 작은 도서관 활동을 시작했다. 문화사업을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 강좌도 운영하고, 책을 보러 온 아이의 엄마들이 뭔가 해보자는 움직임들이 함께하여 '새마을 숲 속작은도서관'이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다는 핀잔도 받고, 생계와 취미의 균형이 깨지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래도 공모사업도 받고 문화사업을 기획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대안공간을 열었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청소년친화공간 모하노'는 개인적인 욕심의 결과물이다. 과거 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이상적 교육과 생계를 위한 교육 사이의 괴리로 회의감이 들었다. 지역에 여유 공간이 생겼는데 그곳이 학원이 되는 게 싫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 2019년 5월에 문을 열었을 때 여러 연령층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대안공간을 구상했지만 아이들이 점령하면서 계획과는 다른 곳이 돼버렸다.(웃음) 현재 청소년들이 점거하다시피 한 상황이지만 모임이나 학습, 요가 등 성인 이용자들의 수요도 생겨나고 있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양도할 생각이 있고 지금 공간의 확장보다는 지역에 새로운 공간들이 더 생겨나길 바라고 있다.

올해 작은조사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지역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 겪으며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텐데요?

산청이란 지역이 좁다면 굉장히 좁고 또 넓다면 참 넓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화적 스펙트럼이 넓은데 지역 간, 문화 간, 세대 간 교류가 없어 장년층에 포커스를 맞춘 문화로 정착한 사례가 많다. 경제활동에 바쁜 30~50대는 생계유지의 부담이 커서 취미든 활동이든 짬짬이 할 수밖에 없다보니 그 세대의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지역 노년층 문화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교류도 적극적이지 않다보니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유가 없고, 원주민은 파이를 나눠야 한다는 점에 경계심이 있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로의 시행착오를 이해하는 따듯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문화우물사업으로 장터를 준비하며 드러나지 않은 소모임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강사도 생기고, 아직까지는 귀농, 귀촌한 분들 중심이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유입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체육대회나 단체관광을 제외하고는 공동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전무하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다같이 무언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도 어려운 부분이다.

센터와 여러 사업을 같이 했는데, 경험을 나눠도 좋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이야기도 부탁드려요.

'사업' 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 없는 우리들에게 진입이 어렵지 않은 공모사업이라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기존에 운영할 여력이 없어 결과를 만들어 오라며 떠넘기듯 지원하는 사업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사업을 진행할 때도 지역 실정에 맞게 집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점도 좋았다. 그리고 센터의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지원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열정으로 유지될 동아리가 생겼다. 동력과 열정을 만들어서 첫발을 디디는 데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중 활동을 위한 활동, 작당모의가 가능한 모임이 생긴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활동 공유나 개인적인 이야기든 뭐든 보고 배울 것이 있어야 지역의 활동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이 획일적으로 활동하게 될 우려가 있지만 지역주민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험이 있는 '나'의 주장이 원주민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리며 이해받을 수 없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 이때 센터도 지역주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차원에서 규정짓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존재로 배운 점도 있다. '지원해주는 단체의 모습' 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끼리만 활동을 하다가 다른 활동을 하는 분들을 도와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아쉽거나 불편한 것, 개선될 점은 없나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센터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언제든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지원해주는 느낌이다. 센터의 가장 좋은 점은 지나친 간섭이나 도움도 아니고 아예 관심 없음도 아닌 지역에 맞는 활동을 하는데 적정거리를 잘 유지하며 지원해 준다는 점이다. 진입하기 위한 울타리는 낮지만 탄탄한 지원을 받는 느낌이고 시작은 지원으로 받지만 결과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 지역에서의 의지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동기부여를 참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활동이라는 것들이 전무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포럼, 사례발표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지역의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생업 외에 다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즉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소 주목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여성처럼 지역에서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가능성을 미처 내가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배움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휴식과 회복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스스로 가꿔나가는 자치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명왕성_김한범

인터뷰 진행/정리 정푸른

나 역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스스로 ‘교사’ 보다는 ‘활동가’ 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과 자립을 도우며 잘 살아갈까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힘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싶기 때문이다. 산청읍에 위치한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 에서 코디네이터를 맡고 계시는 김한범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산청에 내려와 만난 사람들 중 ‘동종업계 종사자’ 라고 부를 만한 사람 혹은 가장 궁금한 활동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은 사람일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다. 자주 뵈었지만 정작 김한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시간은 많지 않았다. 언젠가는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들,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따로 뵙기를 청했다.

Wow*

12년간 교사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교사생활 이전에도 청소년이나 청소년 활동에 대해 연결점이 있으셨나요?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가진 건 제 청소년기 때부터에요. 청소년기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도 여긴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난 여기(학교)에서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학교의 선생님이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좀 더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사가 되어서도 아이들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경험이 계속되니까 결국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시스템 안에서 영영 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불만이 쌓여서 학교를 나왔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 청소년 시기에 경험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산청에 귀촌귀농하신 분들 가운데 공감해주실 만한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듣게 되어 거의 연고도 없다시피 한 이곳에 이사를 왔죠. 배움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휴식과 회복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스스로 가꿔나가는 자치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잘 쉬고, 눈치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함께할 청소년들을 모았어요. 청소년 운영진들이 실질적으로 공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저는 운영진들이 공간을 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움주는 역할로 고용되는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청소년 운영진들과 기획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후원인들을 모집해 2018년 10월에 문을 열게 되었어요.

'명왕성' 이라는 이름이 흥미로운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명왕성은 현재도 존재하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행성으로 인정받으며 태양계라는 시스템 안에 있다가 어떤 외부적인 기준으로 어느 순간부터 태양계 행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의 나이도 어느 시기에는 어른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타자들의 기준에 의해 어느 시기에는 사회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점도 닮아있어요.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있는 대상처럼 생각되는 게 청소년의 존재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현재 청소년들은 '명왕성' 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주로 청소년 운영진이 중심이 되어 이용하나요?

사실 제일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명왕성 운영진으로 기꺼이 참여한 친구들이 정작 명왕성을 이용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에요. 운영하는 친구들과 이용하는 친구들 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용하는 친구들은 와서 쉬고, 먹고, 놀고, 공부하고, 자고, 편하게 이용하고 가는데, 명왕성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는 않고 그저 이용만 한다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자주 이용하는 친구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인데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라고 봐요.

산청은 어린이, 청소년 이슈가 활발한 곳인 것 같아요. 여러 대안학교가 있고, 학부모 모임이 민들레읽기 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산청은 어떤 곳인가요?

산청은 저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저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여의치 않은 상황,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고,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 산청 지역의 저력인 것 같아요. 산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조건들과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숨은 힘들, 지역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힘들이 더 힘껏 발휘될 수 있게 민과 관의 협치가 좀 더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속도가 더딘데, 그 느린 속도를 잘 견디고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명왕성은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관계를 맺고, 지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나요?

네. 밥값이든 찻값이든, 사람들을 부담 없이 모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회의하는 과정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도 전달되고, 회의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밥을 한 끼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갖게 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 진행하는 '꿀알바' 사업은 센터의 지원이 아니면 해보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틀이 되어주니까 큰 도움이 되었지요.

센터의 지원이나 협력, 관계맺기에서 아쉽거나 더 필요한 부분은 없으셨나요?

지금도 센터에서 단체간의 네트워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별로 파트너를 두긴 했지만, 월 1회 네트워킹 모임을 갖는다던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리산포럼' 같은 프로그램이 좀 더 작은 지역단위로 열리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산청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산청 포럼이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죠?

네, 지리산포럼을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께 '지리산권'은 어떤 의미인가요?

놀이터였으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를 마음껏 꿈꾸고, 즐겁게 놀 듯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곳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재미있어서 하거든요. 계속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산청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제 역할이 큰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산청에는 저마다의 작은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벌써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나는 이제 겨우 산청에 발을 디딘 새내기 주민이지만, 산청살이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곧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은 돌잔치를 연다. 뜨끈뜨끈한 축하와 응원을 전하고 싶다.

"돈을 벌면 사회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는 돈의 일부는 누군가를 위해 써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유다."

목화장터_김영철

인터뷰 진행/정리 쭈이

그의 말대로 그는 눈에 띄는 풍채다. 풍채도 풍채지만 까무잡잡한 피부에 하얗고 긴 수염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다. 그가 이야기한 지역에서의 쓸모, 그는 자신의 풍채도 그 쓸모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와의 인터뷰 후 나는 어딘가의 구성원으로 어떤 쓸모와 마음새를 가졌나 되짚어 생각해보았다.

쑥 (강도현)
배차, 적대
감자, 두릅버 빌
호마로 (김연미)
봄에서 여름 지나
그 여러 날들을 비 바람 맹볕으로
역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남겨버리
어느틈에 고마운 마음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아닌거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산청에서 한의원 원장으로 20여년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심원 봉사도 19년째 다니고 있다. 원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살아보니 힘들어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도 생태마을인데 공동체적으로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니 판이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이 좀 커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산청 전체를 느슨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

산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과 현재가 궁금합니다.

이곳에 오니 너무 뭐가 없어서 뭐라도 해볼까 싶었다. 처음에는 방향성은 없었다. 음악제, 송년회, 운동회도 했었는데 그걸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간디세계마을축제를 통해 음악제를 해봤다. 극단 큰들도 부르고 세 개 마을이 함께 합창을 했는데 행사가 재밌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마수걸이'란 이름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의 '두목회'다. 건강강좌였는데 혼자서 진행을 하다 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 안에서 콩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맞다 싶었다. 예전에 마을에서 산보마켓이란 걸 해보고 싶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놀러와 산보하듯 마을을 돌고 마을 농산물도 사고, 마을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런 걸 구상했는데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그런데 장터 아이디어가 나와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시작했다. 장터 아이디어로 군수, 면장을 만났고 장터 장소에 대한 논의를 했다. 면에서 허락을 받고 한의원에서 장터를 하고 싶은 사람, 할 사람을 모아봤는데 그때 30명 가까이 모였다.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가 누가 나서니 모였던 것 같다. 그때가 2014년인가? 2015년인가? 그렇게 목화장터가 시작되었다.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해 활동이나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돈을 벌면 사회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는 돈의 일부는 누군가를 위해 써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유다. 어렵다 싶은 곳에 돈을 쓰는 게 자연스럽고, 내가 편해서 부탁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겠구나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덩치가 크니 사람들 눈에 띄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판을 만들 때 쓰임새가 있는 것 같다. 산청에 60대 조기 축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산청토박이도 많고, 군의원이나 공무원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관계를 맺는 것, 그런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정치적으로 뜻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도 있겠지만. 관과 유연하게 풀어가는 방식, 우리가 감시와 견제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대화로 풀어내는 방식이 내 스타일에 맞다. 그리고 그런 역할로 지역에서 쓰임새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산청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어른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 문화센터 말고 공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신문만들기나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 해보려고 한다. 의료생협에 대한 고민도 있다 성심원 미래발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곳의 유후공간을 의료생협으로 만들어볼까 구상 중이다. 지역에 믿을 수 있는 의사, 주치의가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가게들의 생협 같은 것도 해보고 싶다. 지역의 카센터, 식당 등 그것들을 우리끼리 해보는 것. 성미산 같은 모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좀 더 먼 미래의 계획이다. 당장은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와 농민회 등의 사무실이 흩어져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한 공간으로 모으려고 한다. 십전대보탕을 팔아서 기금도 만들 생각이다. 평화비, 농민회, 명왕성, 목화장터, 지속협 등의 기부처를 선택하고 기부가 기금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나 바라는점이 있나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가 지역협력파트너를 통해 사람을 모으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이 좋았다. 지속협을 만들어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의 금액이 아쉽지만 공모사업이나 지역협력파트너를 통해 사람을 묶어주는 역할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지역협력파트너는 지역에서 누군가를 모으는 것, 모아내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그 역할을 해준 것 같다. 센터의 앞으로의 역할은…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요청하겠다. 다만 상근활동가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지역협력파트너 한 사람은 외롭기도 하고. 관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없어서 아쉽다.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작은변화는?

"나이 든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청년이 청년에게 우리동네에 와서 같이살자!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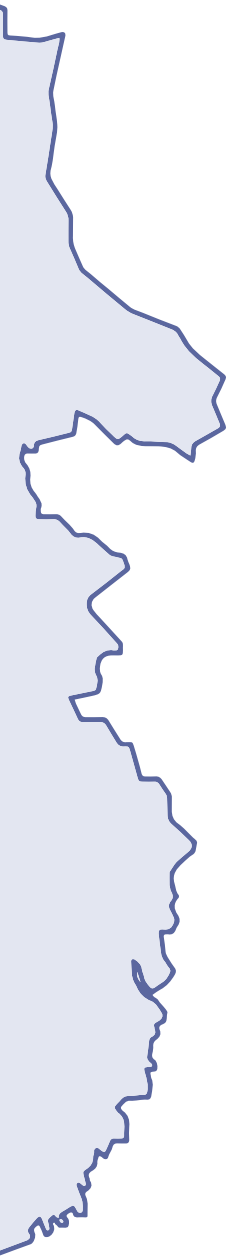
"환경을 보호하며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이상적인 변화는 산 지 몇 년이 되었든 같은 주민으로 생각해주려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지만, 작은 변화로는 최대높이 12cm 이상의 불량 방지턱을 모두 정상범위 내로 낮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희망이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연대의 품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지금부터다.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아지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놀 수 있는 곳)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 즉 고향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숨쉬는 것
(생존하고 존재하는 것, 존재함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다.

18-19년 지원사업현황



하동

#무상급식파동
#환경개발이슈
#양수발전소
#대규모돈사
#화력발전소
#어린이날행사

“이제 귀농 16년차, 두 아들의 엄마죠.
큰 아이 낳고 공동육아를 고민하다
육아모임을 시작했고,
그 모임이 ‘악양작은도서관 책보따리’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이 먼저 와요.”

하동 지역협력파트너_이순경

12월 초, 하동에서 지역협력파트너 회의를 할 때였다. 초겨울의 날씨긴 했지만 그녀는 무척 추워하며 힘들어했다. “어디 몸이 안 좋아요?”, “그런 건 아니고 아침에 1인 시위하고 왔더니 너무 춥네요.” 공동 육아를 고민하다 이제는 동네 홍반장, 아니 하동의 홍반장이 된 이순경님. (이름마저 순경이다!) 그녀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2004년에 큰아이를 낳고 보니, 시골에 또래 아이가 거의 없고, 아이들이 어울려 같이 크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소풍도 다니고, 아이들과 어른들끼리 놀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2009년쯤 마을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게 바로 지금의 '악양작은도서관 책보따리' 입니다. 도서관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지역화폐 만들어보기, 품앗이활동 등 연속적으로 여러 일들이 제안되고 진행되었죠. 저는 항상 나서서 열심히 거들고 이끌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일이 그렇듯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해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책보따리 정도 남았습니다.

활동가로, 지역협력파트너로 하동 지역의 특징이나 이슈가 무엇일까요? 지역의 시민사회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군수주민소환운동을 하면서 하동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는데 그 때 하동이 '참 넓고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 다양하다'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산, 강, 바다. 고루 갖추고 있어서인지 농촌, 산촌, 어촌의 모습이 다 있는데 넉넉한 자연환경에 비해 사는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랄까 기존의 관계들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죠. 기존의 체계를 좀 흔들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압력이 오기도 합니다.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이 단체장들과 행정의 이해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력발전소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의 이주문제, 대형돈사건립이 예정된 고전 성평마을과 금남 대송마을 주민들의 반대운동, 일자리창출·관광사업활성화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산과 들,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는 청년과 청소년 등 산적해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함께 머리 맞대고 나누어보는 상생의 문화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협력파트너로 제 활동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다양한 활동사례들을 접하고 전달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내부 변화를 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협력파트너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활동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역협력파트너로 지역과 지역분들에게 이런 저런 모임을 제안하거나 이끌고 있어요. 잘 노는 아이와 어른을 지향하는 악양부모모임 '노는어른' 은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들었다가 지금은 다른 분이 주도하고 있고, 청소년쉼터 '우악청s' 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동 작은변화네트워크' 라고 단체 또는 개인의 모임도 진행하고 있는데,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모임이 있어요. 지역의제사업으로 하고 있

는 건데, 올해 12월에는 이 모임의 결산으로 '하동 작은변화포럼'을 열 생각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해는 '알프스하동의 환경위기'라는 주제로 강연, 분임토론, 다큐시사회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중이에요. 그리고 '월간 하동사람들'이라는 짧은 영상을 매달 1편씩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한 단체를 소개하는 내용을 위주로 담고 있고, 더 진행이 된다면 하동 곳곳의 숨은 공익활동가들을 찾아내서 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역협력파트너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지역 협력파트너로 센터의 사업과 활동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2016년인가 17년인가 어느 겨울에, 지리산이음에서 몇몇 활동가분들과 인터뷰를 가졌었거든요. 그 때도 참 신선한 자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 질문해주고 기록하고 그러는 게 이상하면서 고맙더라고요. 그 후에 지역조사활동을 할 건데 공익활동을 하거나 고민하는 단체나 개인을 만나 인터뷰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그 이후에 협력파트너 제안도 받았어요.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흔쾌히 받아들였죠. 따뜻하고 차분한 센터와 재단 식구들 만나는 게 저는 참 좋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받고 싶었거든요. 지역의 한계를 절감하던 때라 절망감에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 좁은 시야를 트이게 해주었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격려도 받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고 팍팍 지원해주니까 좀 느슨해지다가도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활동으로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동이 어떤 작은변화가 있었으면 하나요?

소소하고도 즐거운 작당모의가 넘쳐나는 곳이 되길 꿈꿉니다.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아닌, 여러 방향을 지향하는 단체와 개인의 활동이 복잡다단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연대하고 공감하는 일이 벌어지길 바래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센터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하고 그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면 하고요.

"생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니 애정이 생겼어요.
이런 모니터링을 지속하니
지역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애정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또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하동생태해설사회_정명희

인터뷰 진행/정리 이순경

하동생태해설사회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죠? 하동생태해설사회는 어떻게 생긴 단체인지, 어떻게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에 하동군에서 주최하고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에서 주관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기초과정과 2007년 심화과정에 참여했어요. 원래 생태철학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더 많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죠. 1기 교육이 끝난 뒤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겼어요. 하동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관심과 활동, 생태해설 활동.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설 활동만 열심히 하자고 의견을 가진 분들로 나뉘었죠. 결국 전자의 의견을 가진 분들만 남고 2008년 2기 심화교육을 마치고 1,2기가 함께 모여 '하동생태해설사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었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가진 관심과 사랑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생태해설로 이어지는 거라 생각했어요. 당시 우리는 갯벌, 조류, 식물. 이 세 분야로 나눠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는 식물팀이었죠. 그때는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두꺼운 도감을 들고 다니며 하나하나 식물 이름을 찾아야 했어요. 아침에 모니터링을 나가서 이름을 모르는 식물을 채취해오면 그 이름을 찾느라 거의 하루 종일을 소모를 했지요. 그렇게 식물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교육 받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모니터링의 중요성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인데 더불어 그것이 우리의 내실을 키우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모니터링은 꾸준하고 일정하고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지역이나 마을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마을과 관련된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집이 마을과 떨어져 있기도 하고… 생태해설사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까지 너무 좁게 산 거 같긴 해요. 이웃과도 일 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나고, 그래도 만나면 정겨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국시모(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녹색당, 하동참여자치연대, 섬지사(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등에 넓게 걸쳐져만 있지 사실 알고 보면 좁아요.

어느 순간 '좁은 영역, 이 안에 모든 게 있다.'라고 생각되었어요. '어디에 있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자.'라고. 그렇지만 시선은 더 넓게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볼 수 있어야겠지요. 미력하나마 도움이 필요한 곳, 어떤 사안이 생기면 얼마든지 자신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는데 과정이나 결과 등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원을 하게 되서 깊은 고민 없이 듣고 싶은 강의를 단발적으로 연관성 없이 들었는데, 올해는 미리 계획을 해서 한 강사에게 집중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역량 있는 강사 한 분에게 기획력을 높이는 강의를 듣고 스스로 프로그램 기획서를 작성하고, 시연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통해 실제 회원들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해요.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도움이 되는 피드백 방식을 배운 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난 후 강의 과정이 따뜻하고 좋았다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그 강의를 토대로 회원들이 직접 강의 기획자, 주체자가 되어 하반기 공모사업에 지원하기도 했지요. 스스로 강사가 되어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된 회원도 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에서의 작은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동 작은변화네트워크가 생겼다는 것이 작은변화라고 생각해요. 당장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다른 마을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 같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드는 모임이 바로 작은변화이지 않을까요?

“선한 의지를 가진 활동가가 자신의 방식대로
선한 의지를 구현할 수 있게 지지해주었으면 한다.
특히, 예술영역이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원을 하되 간섭은 없었으면 한다.”

지리산필름_배혜원

인터뷰 진행/정리 우애라

하동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94년에 부모님과 함께 하동군 화개면으로 이주했다. 서울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 후 영상제작과 직장생활을 했지만 소신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그곳에서 목수 일을 하며 1년 여의 시간을 보내던 중 2018년 11월 화개골로 돌아와 편안함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그간 쌓인 고민과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했고 '이대로 지내도 괜찮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 이곳에 있게 되었다.

2019년 2월 화개면 양수발전소건설 계획이 알려지고 이곳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처음엔 심정은 '암담' 했다. 그간 환경, 노동 등 시민사회운동의 패배와 지리한 과정을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수발전소저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한마음으로 결합하여 의미있는 결실을 맺으면서 막연히 생각하던 생활터전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제작 작업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치유와 성공의 경험은 내 인생의 행운' 이었다.

그 이후 지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양수발전소설립반대가 성공리에 끝나고 참여 단체들이 하동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하동 작은변화네트워크' 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월 한 번씩 만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2월 하동 작은변화포럼을 기획하는 모임도 하고 있다. 그리고 '월간 하동사람들' 이란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월간 하동사람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양수발전소설립반대 활동 이후 생활과 영화제작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 지역 활동가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5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스스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제작 활동을 염두하고 있던 터라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

월간 하동사람들 소재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후 다루게 될 소재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재는 당면한 하동의 환경 이슈와 하동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명덕마을 화력발전소, 성평과 대송마을의 대규모 돈사 설치 건, 하동농민회 활동에 대한 영상이 제작했다. 어민회 이야기를 담으려 했는데 재첩잡이 시기를 놓쳐 내년으로 미뤘고, 현재는 사단법인 숲길과 섬지사(섬진강과 지리산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기획 중이다. 이 두 단체는 청년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흥미로울 것 같다.

월간 하동사람들에 대한 지역반응과 주변반응은 어떤가요?

유투브에 올라간 영상을 보고 지역분이 연락을 한 적이 있다. 집 근처에 생긴 지렁이 농장에서 나오는 유기성폐기물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었는데 영상이 주는 하나의 파장이라 생각된다. 최근의 즐거움 중의 하나가 유투브 조회수를 보는 것인데 농민회 영상은 이전 영상들에 비해 조회수가 늘었다. 영상에 나온 당사자들(출연자) 중에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칭찬과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 듣는다. 친구들은 '이런 게 다큐지' 라며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다.

월간 하동사람들을 만들면서 뿌듯한 점과 힘든 점이 있다면?

촬영을 위해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등 관계하는 방식에서 스스로 성숙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예전엔 내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애쓰고 논쟁적인 면이 강했는데 의견에 차이가 많은 주민들을 대할 때도 정서와 문화를 근간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영상은 스스로 배우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나누는 것' 이라 생각한다. 그러려면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 변해가는 것 같다.

하동지역에 환경이슈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동지역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환경문제는 타 지역이나 지리산 주변의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정도와 종류의 차이만 있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지자체들은 개발과 성장을 통해서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강박이 있고, 그러다보니 세금을 낭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주민들 역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동은 자연환경이 수려하다. 개발을 하더라도 좀 더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얻게 될 이익이 클 수 있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는 행정이 필요하다.

지역이라는 특징상 영상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점에서 염려는 없나요?

지역에서 영상의 소비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중앙으로 소비가 몰리지만 그 영상들은 일부 유명 제작자에게 몰려있다. 나머지는 노동력에 가치를 받지 못한 채 소모되고 있다. 지역은 소비는 적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자가 많지 않아 꾸준히 노력하고 인정으면 일할 기회는 더 많을 수 있다. 지금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문의와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활동과 사업으로 관계맺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나 아쉬운 부분,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센터의 지원으로 그 동안의 작업과 활동에 활력을 받았다. 지역에 적절하게 활동가와 사업 등을 지원해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한 의지를 가진 활동가가 자신의 방식대로 선한 의지를 구현할 수 있게' 지지해주었으면 한다. 특히, 예술영역이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원을 하되 간섭은 없었으면 한다.

“진교에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시험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할 만한 열람실이 없어요.
그래서 진주, 남해, 하동군으로 가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
아이들이 좀 더 편히 있고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해요”

아이(i)날다_이정희

인터뷰 진행/정리 쭈이

그 이야기는 뜬소문과도 같았다. 면 단위 마을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수백 명이 모인다고. 그래서 이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잔치가 되었다고. 하동군 진교면 젊은 학부모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어린이날 행사는 소소했지만 기적과도 같았다. 어린이날이어도 외지로 나가놀 수 없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과 동네에서 놀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는 그들도,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장과 변화를 주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아이(i)날다 구성원인 이정희님을 만났다.

하동에서의 여유로운 삶? 새로운 삶!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 고향인 하동으로 왔어요, 올해로 이사온 지 10년째네요. 이곳에 오기 전에 울산에서 학교 졸업하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 양로원 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울산 여성의 전화' 에서 7년 동안 활동했어요. 그 단체의 15주년 행사를 마치고 삼일 뒤에 하동으로 이사했죠. 처음에 여기 와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에요. 활동이나 사업 관련 고민, 회원 고민 등 다 벗어던지고 단순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쓸모없는 인간같기도 하고 무기력해지더라구요. 그래서 2010년에 다시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하동 이곳저곳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동에서 적응해서 살 수 있었어요.

무상급식이 준 파동으로 '밥이 빛나는 밤에' 를, 그리고 문제의 어린이날 행사를 만들었다?!

2015년 무상급식 이슈가 있었는데 도지사의 급식 중단 이슈로 하동지역 학부모들이 반발을 했죠. 진교에서도 젊은 학부모들이 모여 피켓팅도 하고 전단지도 돌렸어요. 그 이슈로 고향 선후배, 누구 아내로, 데면데면 만났는데 서로 얼굴 맞대고 같이 활동한 경험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활동을 하다가 진교 남자 양육자들이 주축이 돼서 '밥이 빛나는 밤에' 라는 축제로 동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서로 어울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았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양육자가 자동차가 있으면 군이나 진주 같은 곳으로 나가지만 조손가족이나 맞벌이가족은 마땅히 놀 무언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섯 가족으로 시작했어요. 이 다섯 가족이 현재 아이(i)날다 멤버들이죠. 2016년 어린이날, 진교에 민다리체육공원이라고 거기서 처음 했는데 그때 기억은 휑하다란 기억밖에 없어요.(웃음) 다섯 가족이 20만원씩 모아서 100만원으로 진행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진행했죠. 아이(i)날다 회장님이 사회도 매해 보고. 그러다 모이는 사람도 많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2019년에는 부스나 천막도 다 업체 불러서 설치했고요. 사회자도 외부에서 모셔왔어요. 면장님, 이장님, 단장님도 와서 인사도 하고 지역의 로타리클럽, 청년회에서도 지원해주셨죠. 올해는 처음으로 외부기금도 받았어요. 이렇게 행사가 커지니 외부 지원을 받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우리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마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

진교에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영·유아 때 여기에 왔다가 고학년이 되면 외지로 나가는 분위기에요. 아이(i)날다 구성원들도 고향이 하동인 사람,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온 사람, 하동이 고향인데 외지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직업도 다양하고요. 하지만 젊고 아이를 키운다는 공통점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죠. 또 그것들을 잘 진행해왔으니 지금까지 온 거고요. 어린이날 행사도 진교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행사도 커지고 지역사회에서 보는 시선도 있어 조심스러워요. 이곳저곳

에서 행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도 있고, 군으로 와서 행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취지가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은 꼭 지키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자' 라는 마음이 보드게임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단비(지역협력파트너 이순경)를 통해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공모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사업비가 많지 않으니 보드게임으로 아이와 학부모가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자고 생각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했어요. 이번 보드게임 강좌를 참여하고 나서 삼삼오오 모여서 따로 모임을 만든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해보자, 우리끼리라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생기니 좋은 것 같아요.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보드게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하면 고루고루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 카페에 두고 수시로 대여하는 활용방안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 를 위한 생각들이, '어른' 에게 자극과 바람,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리산권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아쉬워요. 이번 가을에 아는 분이 '지리산포럼' 에 다녀왔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운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참여하지 못해 아쉽죠. 하동으로 활동가나 강사분이 와서 지역에서 잘 듣지 못하는 것, 변화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학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 청소년들도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직업 관련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예산차이가 있으니 아이들이 정보교류를 SNS에서 하고 있어요. 지리산권 지역 청소년들이 같이 이런 경험과 체험에 대한 정보 교류도 하고 경험도 같이 해봤으면 싶네요.

하동에서도 농림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중심부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아이(i)날다에서는 회장님과 제가 참여하고 있죠. 지역의 아이들의 위한 고민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민다리체육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자연친화적인 놀이터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진교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만한 또는 놀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번에 보드게임 프로그램도 면사무소 2층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아이들이 오니 좀 더 아늑하고 편한 공간이 아쉽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진교에도 있었으면 싶어요.

내가 바라는 우리 지역의 작은변화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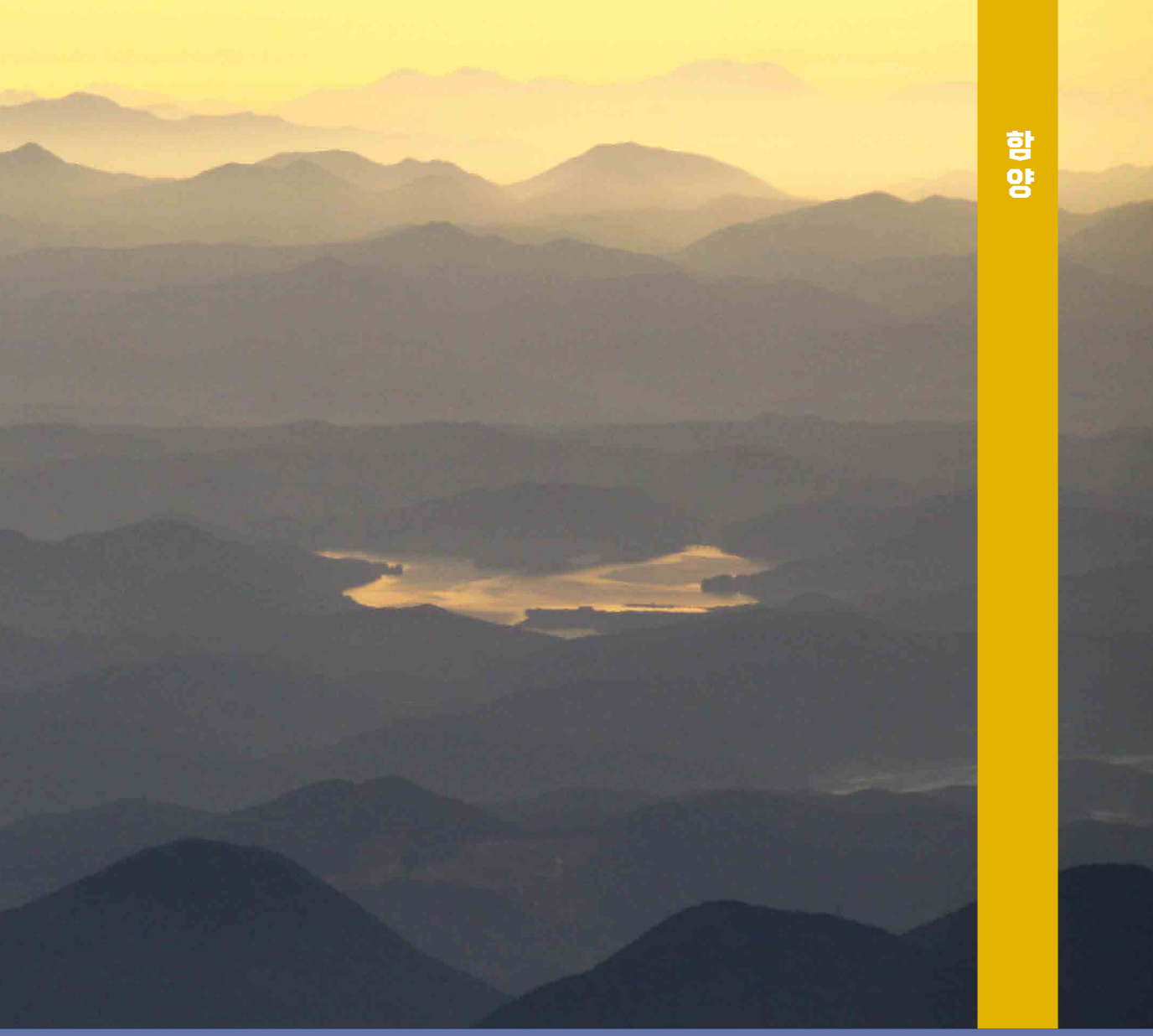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쓰레기환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죄책감 없이 자연과 살기 쉬운 곳"

"남녀노소, 마을 주민들이 신뢰의 바탕 위에 의지하고 도우며 삶을 꾸려가는 것."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곳"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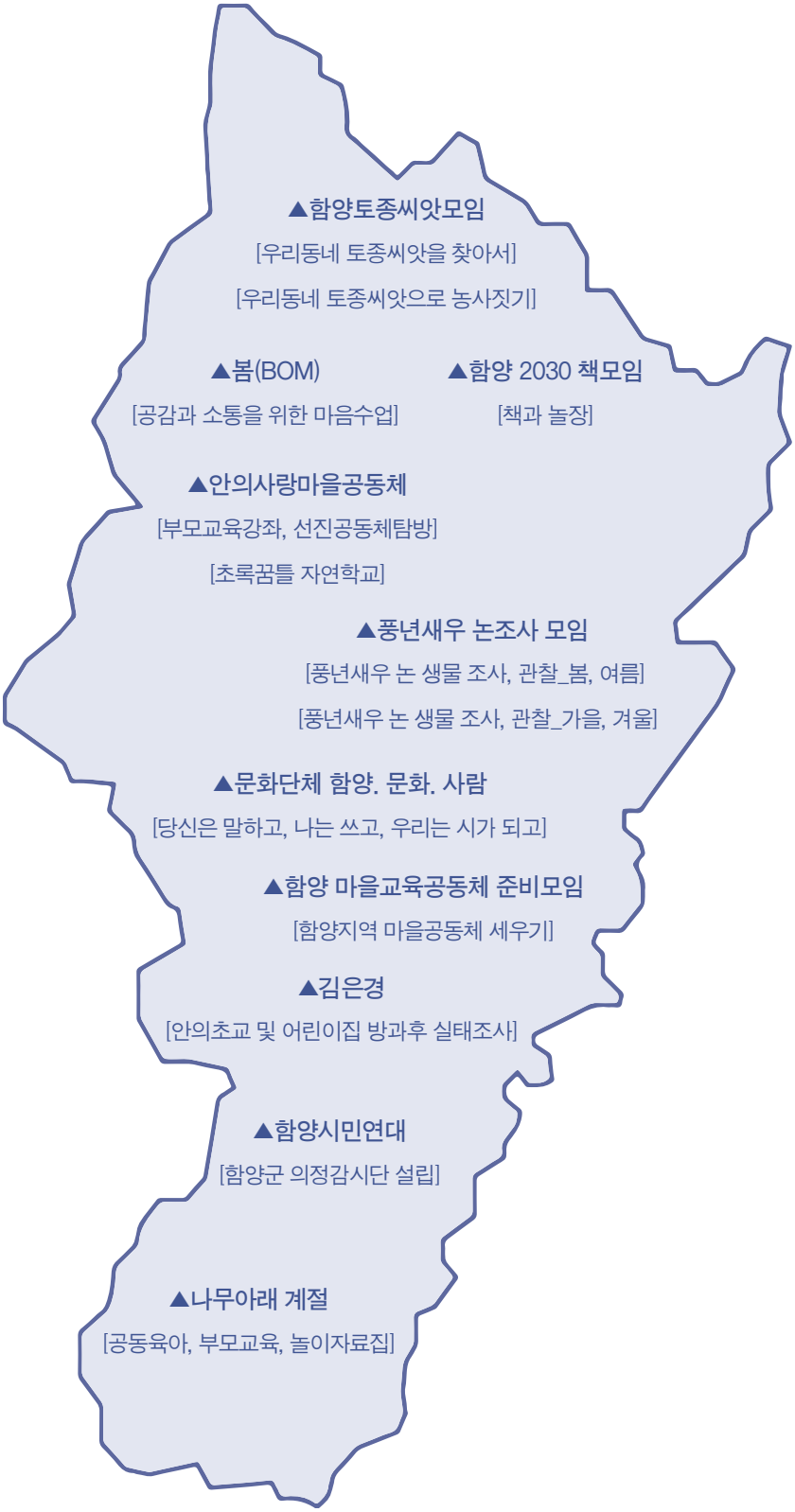
"고속기차역이 생기는 것"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같이 잘해 봅시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좁은 것 같으면서도 넓다.
나의 작은변화는 참 어렵다.

나에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는 멘토다.
나에게 지리산권은 (함양에) 씨를 뿌릴 토양/텃밭이다.
나의 작은변화는 아침에 듣는 귀뚜라미 소리다.

18-19년 지원사업현황



함양

#무상급식사태
#시민모임의다양화
#최초의군립도서관
#마을교육공동체
#토종씨앗
#의정감시단

“시민사회가 아직 탄탄해진 건 아니지만,
작은 모임들과 무언가를 해보자는 움직임들이
곳곳에 많아진 것 같아요.”

함양 지역협력파트너_이은진

※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함양 협력파트너 이은진입니다. 5년 반 동안 '빈둥' 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거창하게 말하면) 커뮤니티 기획과 공간 운영을, (안 거창하게 말하면) 빈둥지기 '이 마담' 으로 살아오다가 2018년 초부터 함양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서부경남 4개 군을 아우르는 학부모지원전문가 역할과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함양 협력파트너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함양에서는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2012년 서울에서 함양으로 우연히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남쪽으로 튀어〉를 읽고 그해 가을 저의 놀이터이자 동네 사랑방인 함양 제1호 공정무역 까페 '빈둥' 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집 밖으로 나왔지요. 워크숍, 주민 모임, 작은 장터, 살롱음악회, 주민 이야기 자리 등 재미있을 만한, 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마음껏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함양을 알아갔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며 학부모가 되었고, 2014년 경남 의무급식 "무상급식" 운동에 참여하면서 학부모활동으로 지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년 5개월 정도 빈둥에서 '이 마담' 으로 불리며 공간지기를 하다 지겨워질 때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협력파트너를 제안받아 함께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네요.

함양의 지역적 특징이나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의 시민사회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함양은 인구 3만 9천여 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입니다. 지리산 북쪽, 덕유산 남쪽에, 경상남도 서북단에 위치해 남원, 장수, 거창, 산청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이주해 온 당시에는 지역 의제에 관심을 모으고 함께 대응하

는 시민사회가 미미했습니다. 군수는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가고 다시 선거를 치루는 일도 허다했고요. 그렇다고 지금은 시민사회가 탄탄해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작은 모임들과 무언가를 해보자는 움직임들이 곳곳에 많아진 것 같아요.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자는 것, 전무한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 최초의 군립도서관을 짓는 것, 이러저러한 시민 모임들을 다양하게 조직하는 것, 마을교육공동체를 해보자는 것, 토종씨앗을 지켜가자는 것, 지역 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것 등 지난해와 올해 다양한 움직임들이 가시화되었죠. 사실 제가 그 안에서 하는 역할들은 많지 않아요. 이러한 네트워크들을 잘 엮어보자는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밥을 먹는 모임을 기획하고 판을 까는 것, '마을'이라는 주제로 의제를 탐색하는 포럼을 기획해서 여는 일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을 같이 하는 '함양 작은변화네트워크' 기획단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지리산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활동가로, 지역 협력파트너로 센터의 사업이나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이 가장 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협력파트너 회의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 그리고 실제 방문 만남 등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일에 대해서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사업을 같이 기획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센터의 지원을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구조 혹은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역동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센터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센터가 지리산권에 씽크탱크 같은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리산권역을 중심으로 농산촌 지역, 소도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 처음에 지역조사활동을 한 것처럼 조사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며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의제들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작은 모임들, 작은 움직임들을 지원하는 역할,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체들을 위한 사업들을 개발하며 지자체에 모델을 제시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놀이터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배울 만한 공간도 없는 안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해요. 결국 커리큘럼은 큰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 간의 경험을 통해서 또래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안의사랑교육공동체 ‘나란히’_최홍성미, 김효선

인터뷰 진행/정리 이은진

안의는 함양군에서 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한때 거창 4개 면과 함양 2개 면을 아우르는 중심지였다는 ‘프라이드’가 강한 곳. 한때 조선 아나키스트들의 본거지였다는 동네, 함양군 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는 곳… 이 기세등등한 안의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를 함께 잘 키워보자며 모임을 시작한 것은 2015년이다. 최근 ‘안의교육공동체 나란히’로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체제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궁금했다. 지역 어린이들의 사랑방이자 안의 읍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페 ‘파란지붕’에서 새로운 실무진으로 함께하고 있는 ‘나란히’ 대표 최홍성미와 사무국장 김효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동체의 시작은 안의면 이문마을에 있는 구세군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인 것이다. 구세군에서 당시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괜찮아서 몇 집이 모이게 되었고, 재능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의기투합되면서 일종의 공동육아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구세군교회에서 '사관' (목사와 같은 사람)을 맡고 있던 학부모와 그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주 공간이 구세군교회에서 전 '안의사랑마을공동체' 대표 김은경이 운영하던 면소재지의 미술학원으로 바뀌게 된다.

"아이들을 어떻게 함께 잘 키워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안의지역 아이들을 위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우선 일상적으로는 레고, 책 놀이, 영어 책 놀이, 미술, 보드게임 등 각 엄마들이 가진 재능을 바탕으로 꾸려진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도서관이나 쉼터인데 여건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수업이 학원 혹은 방과후교실에서 하는 것이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최종 목적은 사각지대 아이들을 끌어 모으고 싶은 것이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도모를 해 보는 거죠."

당시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학부모들은 면사무소로, 학교로, 마을회관으로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얘기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웃음) 시골의 정서를 잘 몰랐죠. 지금 생각해 보면 선주민들은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거나 헤집고 다닌다는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마을공동체에 작지만 마중물이 되어 준 것이 바로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의 지원사업이었다.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성미 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이들 프로그램만 하는 것보다는 부모들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센터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에는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안의지역에서 열린 부모교육을 해보게 되었고, 2019년에는 '초록꿈틀자연학교' 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작은변화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저희는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다양한 분야의 기획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을의 부모들을 만나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고, 다른 지역 공동체 탐방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할 수도 있

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거죠. 지역사회의 사업은 인적, 물적 자원 한계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거든요. 컨소시엄 형태로 관련 단체나 모임을 협력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서 작성이나 기획의 경험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서 작성 요령이나 마을 기획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8명이던 운영진을 실무진 3명으로 축소하고,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던 '마을'이라는 단어를 덜어 낸 공동체는 '안의사랑교육공동체 나란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2020년을 맞이하려 한다. 새로운 시작부터는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보고자 하고, 그런 의미에서 외부 인사도 함께하는 자문단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비전과 방향성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외부인들을 몇 분 생각해두었는데 지역 분들 중에서 모실 분이 없을까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들과 실내에서 교육의 형태로 만나오던 공동체가 올해 아이들을 밖으로 빼내어 생태 관찰 프로그램을 하면서 새 스텝을 밟게 됐다면, 다음은 어디쯤을 내딛게 될까.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함께 먹을 공간이 있으면 삼삼오오 같이 모여서 잘 먹으며 만나고 싶어요. 같이 밥 먹는 문화를 만들고 싶달까? 밥 먹는 일은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마 오래지 않아 새로운 공간에서 아이들과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 '안의사랑교육공동체 나란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이들과 무엇을 함께 할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안의교육공동체가 부디 긴 호흡으로 누가 먼저 나중이라 할 것 없이 '나란히' 함께, 천천히 걸을 수 있기를.

“제가 드린 토종씨앗 모종이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키우는 모종이니 더 심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일반 종묘상에서 산 모종과는 실패한 마음이 다르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 마음가짐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함양토종씨앗모임_채화석

인터뷰 진행/정리 녹두

그는 까무잡잡한 피부와 항상 쓰고 다니는 두건,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를 닮은 딸아이를 가진 남자 사람이다. (세 가지만으로도 당신은 함양읍 바닥에서 아! 저 사람이 채화석이구나 하고 단박에 알아볼 수 있다. 참말이다!) 나 또한 함양에 귀촌하면서 그의 활동을 드문드문 볼 수 있었는데, 최근 함양토종씨앗모임 활동을 통해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를 함양읍 시민연대 사무실에 만나 이야기 나누었다.

부산에서 신혼집을 차렸으나 부부는 시골살이를 희망했고, 함양에 사는 아내의 선배가 인연이 되어 연고 없는 함양으로 귀촌하였다. 일을 추진한 아내보다 오히려 자신이 일찍 귀촌해 함양군 병곡면에 터를 잡았다. 그는 함양 농민회 사무처장과 경남 한살림 공동체 총무이자 함양토종씨앗 대표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함양 농민회는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사람과 농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농민회 활동은 뜸하다. 대신 한살림 생산자로 양파와 감자, 배 납품 등 농사일에 더 집중하고, 올해부터는 토종씨앗 활동도 공을 들여 활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작은변화의 시나리오 사업' 으로 그를 포함한 함양토종씨앗 조사단이 백전면을 돌며 토종씨앗조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사진을 찍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집집마다 방문을 두드리며 씨앗 조사를 하더라. 내가 놀란 점은 대뜸 찾아와 토종씨앗을 빌리는 이들에게 어느 누구 하나 귀찮은 기색 없이 씨앗을 내준 할머니들의 모습이었다. 농부는 굶어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고 하지 않았던 그 귀한 씨앗 아니던가!

"토종씨앗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 할머니들을 통해 들으니 더 마음에 와 닿았죠. 할머니들이 말씀하세요. 맛이 좋아서, 자식들이 좋아하니깐 몇 십 년 동안 키웠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좋았을 텐데… 3월, 농부가 가장 바쁠 시기에 시작한 일이라 아쉬워요. 제가 농사를 지으니 잘 알죠. 운 좋게 집에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도 바쁜 철이니깐 오래 말씀 나누기도 죄송하고요."

상반기 씨앗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도 작은강좌 사업을 이어받아 토종씨앗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백전면 씨앗 조사 때 얻은 씨앗으로 직접 모종을 키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누구 하나 모종값 주지 않고 토종작물을 받아 가는데 수고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제가 어차피 모종을 키우니깐 더 심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죠. 만약 그분들이 가지고 간 토종씨앗 모종을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일반 종묘상에서 산 모종과 토종씨앗을 실패한 마음은 서로 달라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 마음가짐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하고 내리쳤다. 맞다! 그 마음들이 모여 씨앗 한 알을

귀하게 여기고, 토종 가치를 알고 세상을 위한 마음이 모인다는 이치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부산과 함양을 오가면 무형문화재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부류가 언제나 인정받고 빛나는 시대지만, 내 주변에는 자신의 욕구와 에너지를 감추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치질 모르는 맑은 에너지를 가진 영혼들. 그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토종씨앗과 농사뿐 만 아니라 시민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함양군은 내년 함양산삼엑스포를 앞두고 1년 예산의 1/4를 이 행사에 말 그대로 쏟아 붓고 있다. 그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와 이후 유지관리비를 걱정하고 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근 시민연대에서 시작한 함양의정감시단(이 또한 작은변화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이다.)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정감시단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해요. 지난 군수 선거처럼 모 군수가 3번이나 나왔다고 할머니들은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뽑아줘요. 함양처럼 학연, 지연이 심한 곳도 없어요. 농민회 활동을 해보니 보여요. 의정감시단을 통해 군수, 군의원들이 긴장하고 일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토종씨앗뿐 만 아니라 의정감시단도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마친 이후에도 그는 한동안 지역 관료주의 부정부패와 시민활동에 관한 의견을 풀어놓았다. (말을 듣는 중간에도 그는 딸과 눈동자가 닮았구나 하고 떠올렸다.)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이야말로 욕심 없이 농사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는구나 생각했다. 이번 토종씨앗 활동을 계기로 토종씨앗 판매와 교육 등을 계획하고, 함양군 시민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라는 채화석 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함양에서 다양한 활동과 계획을 가진 그의 행보를 지지하고 기대해 본다.

“지역에 내 아이의 이모와 삼촌들이 많아졌으면 해요. 그러려면 양육자인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과 생활을 해야겠지요. 지역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관계가 이어지고, 활동이 자주 일어났으면 싶어요.”

나무아래계절_사사

인터뷰 진행/정리 쭈이

사사(私私)롭다. 사사의 닉네임은 ‘사사롭다’에서 왔다. ‘공적인 성질이 아니고 개인적인 성질이 있다.’ 개인 사(私)가 두 번이나 붙은 사사는 도시에서 살다 생명, 철학, 삶과 먹거리를 생각하며 시골로 왔다. 그리고 더 이상 사사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어느새 가정이 생겼고, 여러 공동체와 단체에서 활동하며 아이와 지역 그리고 양육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삶이 되었다.

함양으로 귀촌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 지 궁금합니다.

서른이 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내 삶을 코디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평소 생명을 직접 키우고, 먹거리를 직접 챙기며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이 삶이 더 맞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연고도 없는 남원에서 귀촌교육을 받았고, 평소 자연철학과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백전면 온배움터와 함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단 내려와서 함양을 거점으로 안착할 곳을 찾아보려고 했다. 계획하지 않고 왔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과 인연이 있었다. 2014년 함양에 전입신고를 한 후 일 년 정도 있다가 신랑을 만났고 현재는 딸이 하나 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는 지원사업을 통해 인연이 되었지요. 어떻게 시작했고, 그 과정은 어땠나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 되니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자연, 토종, 건강 등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지역의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곳만 바라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틀 안에 있는 교육이나 육아가 아니라 대안교육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지원사업으로 '나무아래 계절'을 시도한 것 같다.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놀이와 육아를 위해 자체적인 놀이활동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시작했다. 아이 놀이와 양육자인 부모 활동을 할 수 있었고, 활동의 결과물로 책자를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란 완결성, 의무감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었다. 이때의 활동과 경험이 훈련을 위한 첫 발자국 같았다. 물론 관계와 인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공부가 되기도 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하고 싶은 활동도 알려주세요.

함양에서의 활동은 결혼과 출산 전후로 나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생긴 육아스트레스로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이 계기가 되어 나와 가장 연관된 이슈인 육아를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활동했다. 아이를 키우며 움츠렸던 활동들이 되살아난 느낌이 들었다. 이후 마을카페 빈둥,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활동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오케이하면서 여기까지 이어진 것 같다.

문화놀이장날 기획단으로,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여러 일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한 경력과 초·중학교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과 후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들이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은 여러 활동을 외부로 알리는 일, 홍보물이나 홍보디자인, 로고와 포스터 제작 등을 하고 있다. 백전면 '다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외부 활동가로 합류해서 놀이중심의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했다. 현재 임의단체는 아니지만 형태가 있는 단체가 돼보자라고 이야기중이다. 그리고 가칭으로 지음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육아에 관심 있는 가족이 모여 토종농사, 토종으로 만드는 요리, 아이들 교육 등에 대해서 활동과 상상을 하고 있다.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작은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열린 생각들로 아이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꾸준히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다. 지역에서 대안교육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서서히 그런 장을 만들어 보려한다.

아이에게 지역에 많은 이모와 삼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가 지역에서 활동으로 녹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문화, 교육, 정치적 이슈든 활동이 자주 일어나고 서로 접촉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게 삶의 촉매제이자 작은변화라고 생각한다.

부록

기본현황조사

인포그래픽

지리산권 청년 기본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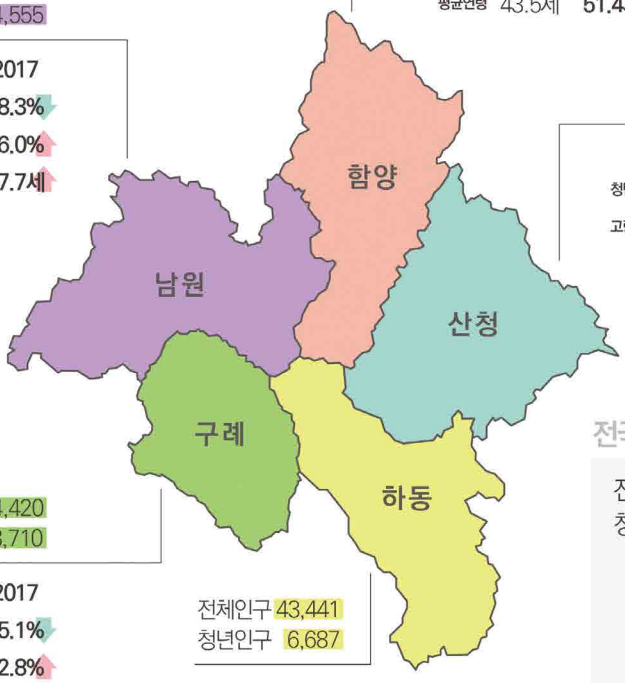
2018년 지리산권(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기본현황과 함께 청년 16명의 인터뷰를 묶은 조사집.

지리산권 청소년 기본현황조사

2019년 지리산권(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기본현황과 함께 11명의 청소년 인터뷰를 묶은 조사집.

❖ 보고서는 지리산 작은변화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청년이 얼마나 있을까?



함양

전체인구 37,942
청년인구 5,619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1.3%	14.8%
고령인구비율	21.1%	31.8%
평균연령	43.5세	51.4세

남원

전체인구 73,282
청년인구 14,555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7.1%	18.3%
고령인구비율	20.5%	26.0%
평균연령	38.5세	47.7세

산청

전체인구 34,033
청년인구 5,117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3.1%	15.0%
고령인구비율	21.8%	33.5%
평균연령	44세	52.7세

구례

전체인구 24,420
청년인구 3,710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1.6%	15.1%
고령인구비율	15.6%	32.8%
평균연령	43세	51.9세

하동

전체인구 43,441
청년인구 6,687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2.7%	15.3%
고령인구비율	20.8%	31.7%
평균연령	42.5세	52세

전국 (2017년 기준)

전체인구 51,422,507
청년인구 14,443,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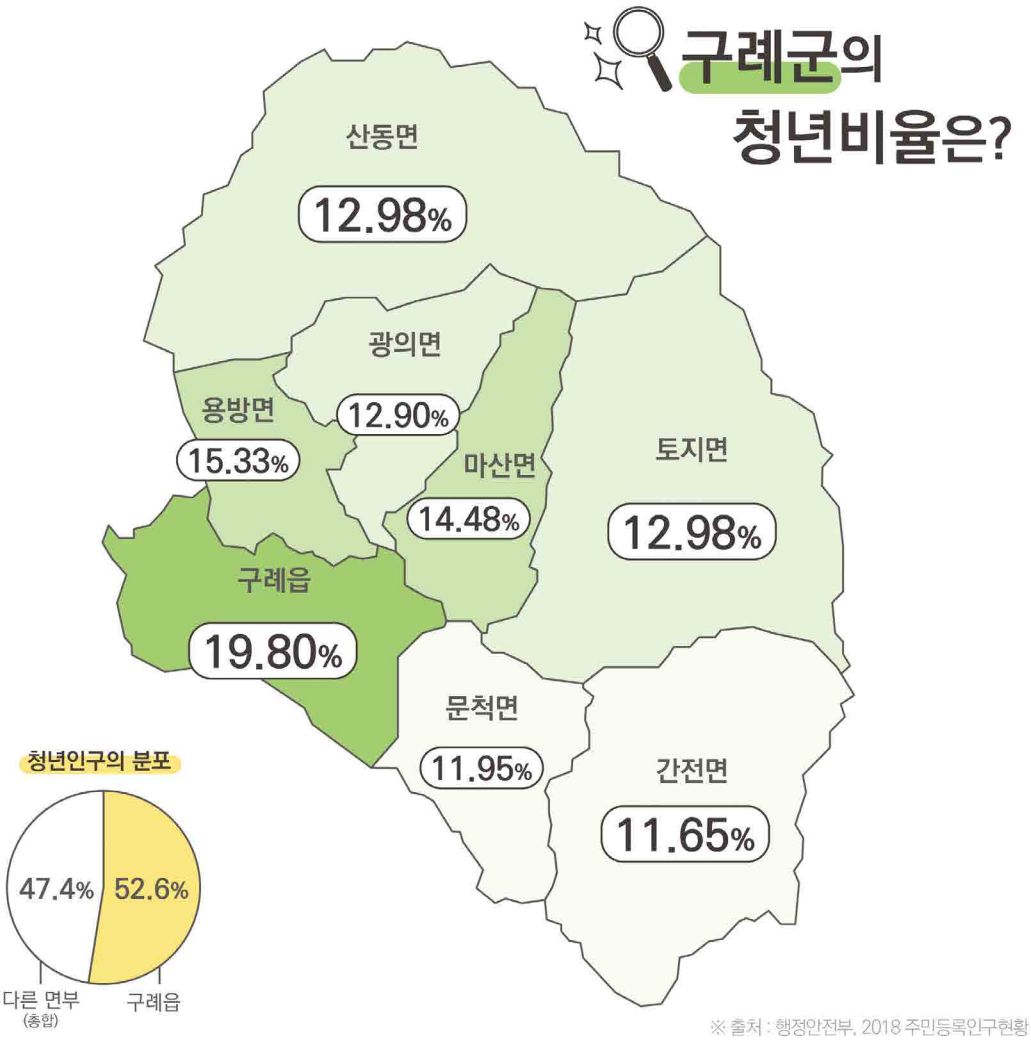
청년인구비율	28.0%
고령인구비율	14.3%
평균연령	41.3세

※ 청년인구비율 : 20-39세 인구수/전체 인구수 * 100
고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수/전체 인구수 * 100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 201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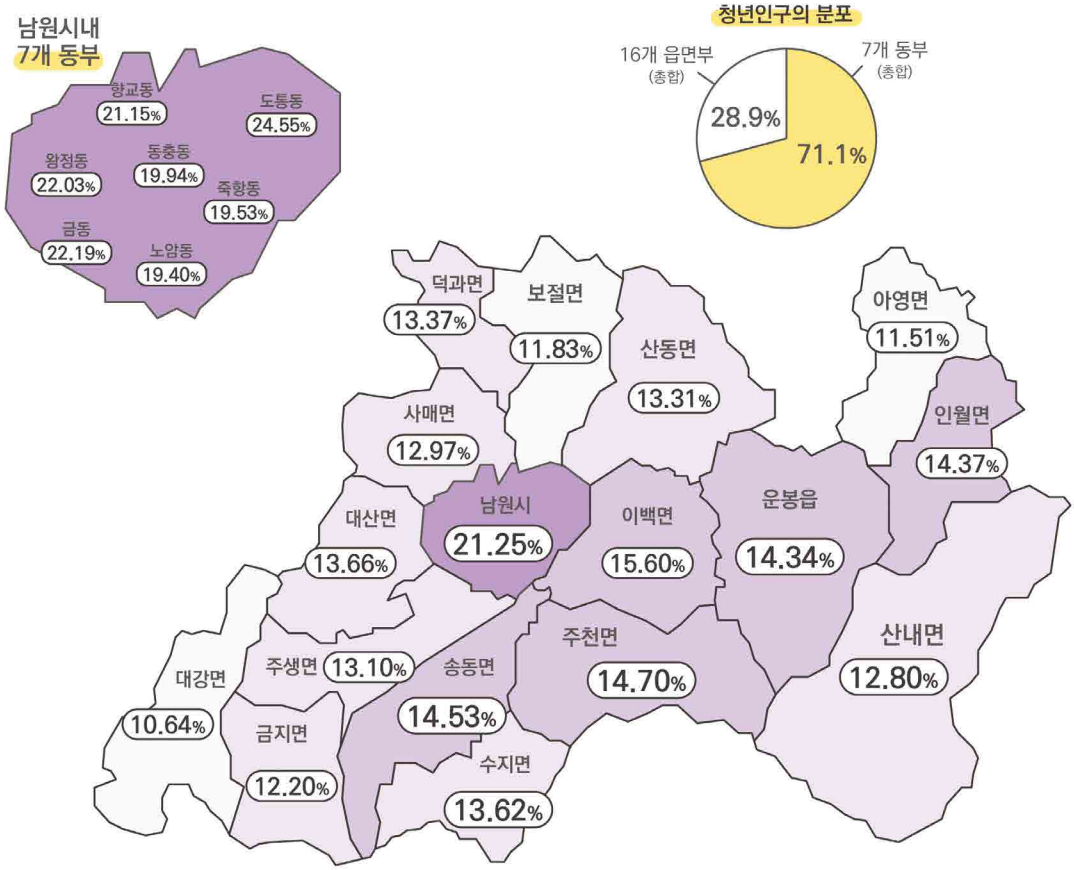
구례 청년인구



※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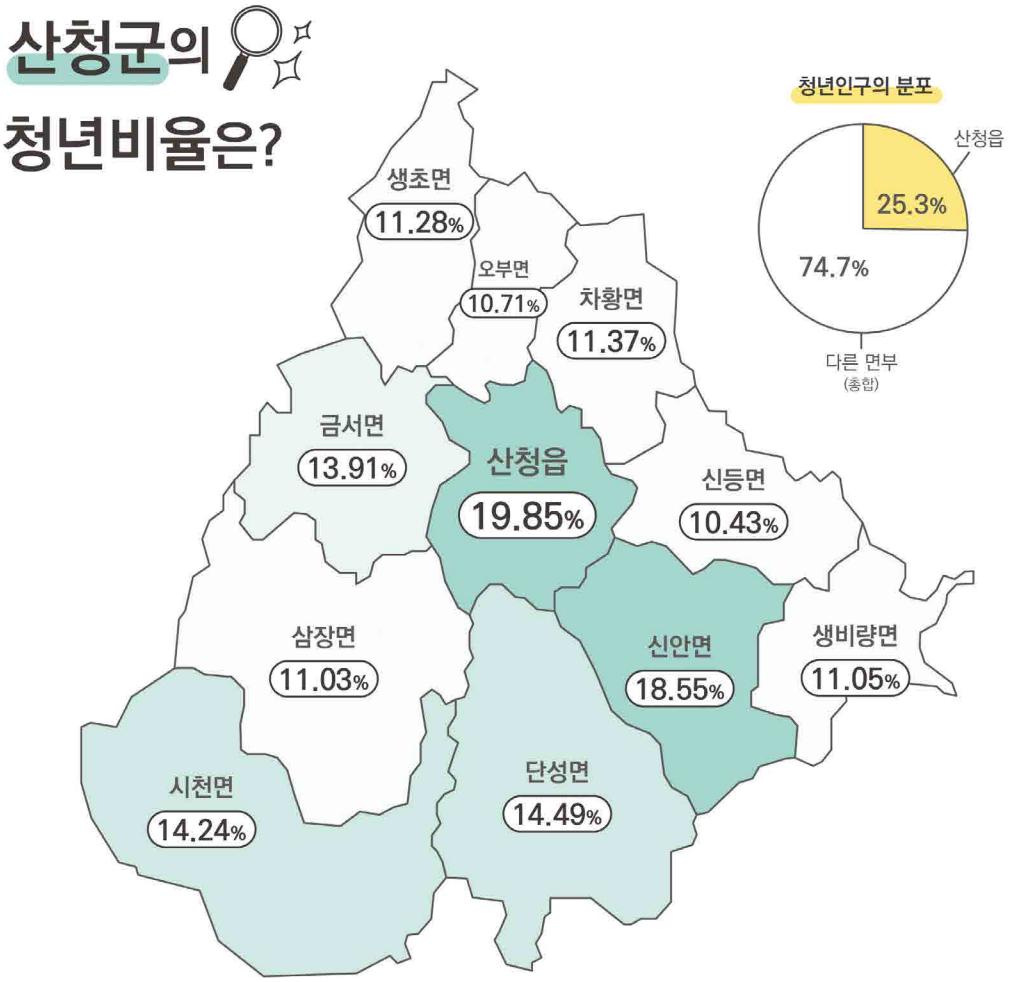
남원시의 청년비율은?



※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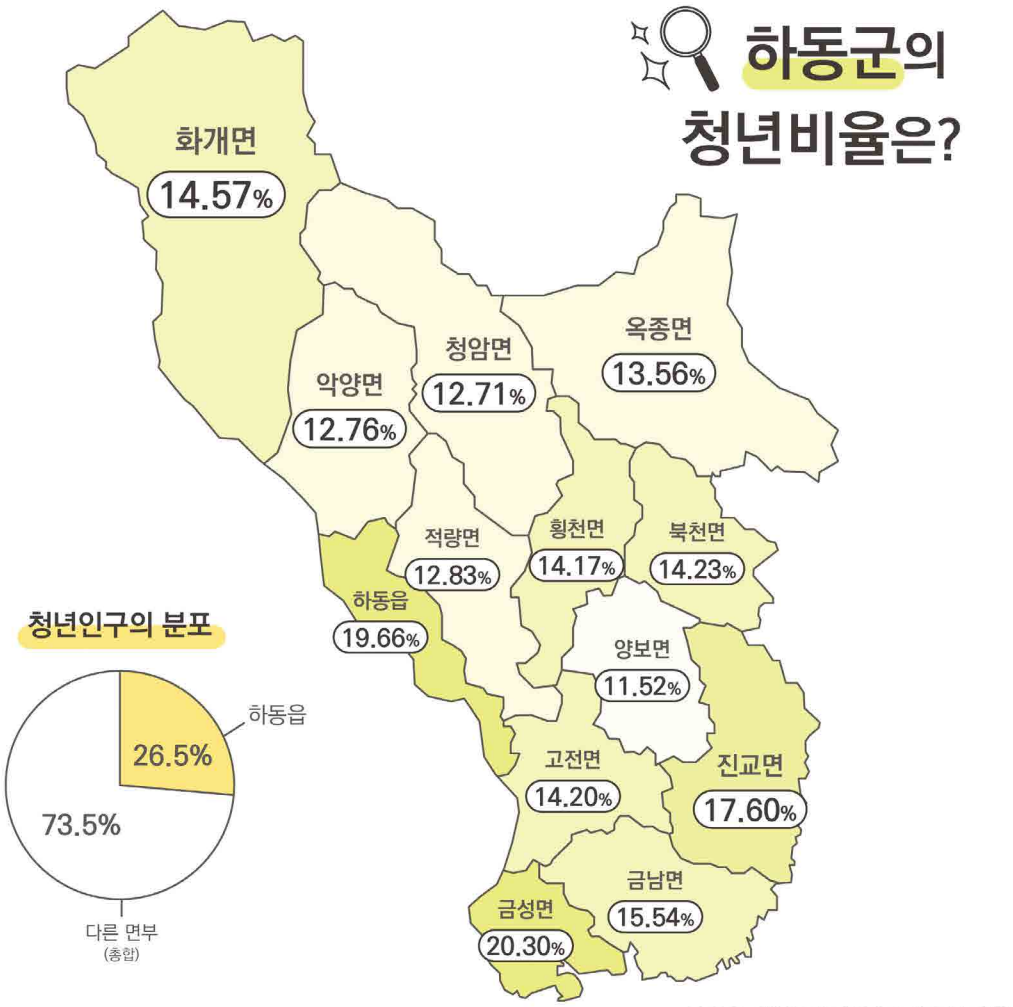
산청 청년인구



※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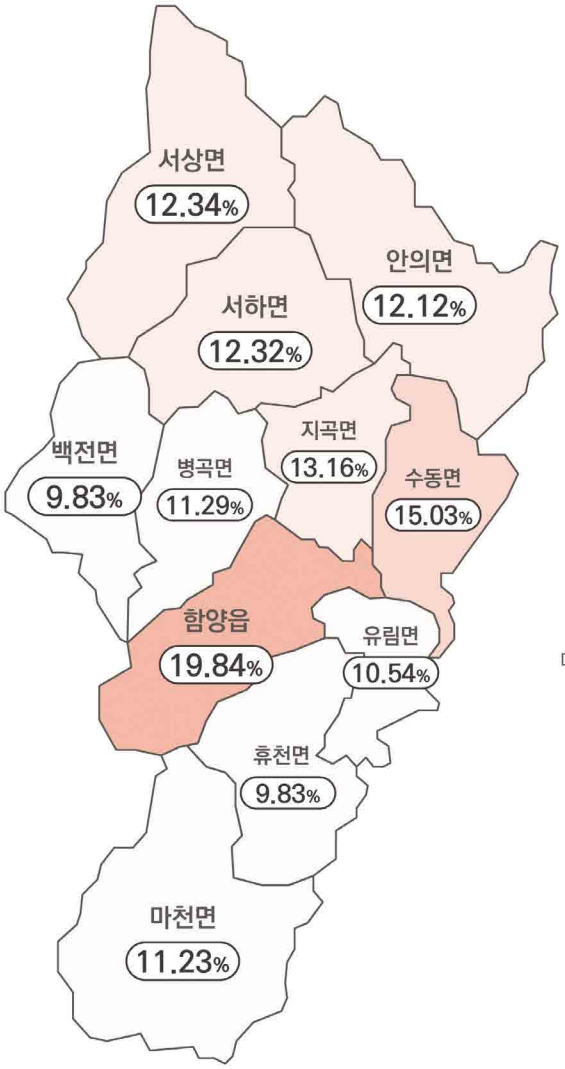
하동 청년인구



※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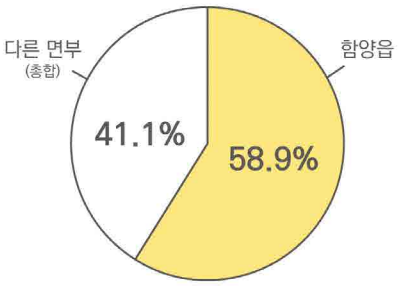
© 201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함양 청년인구



함양군의 청년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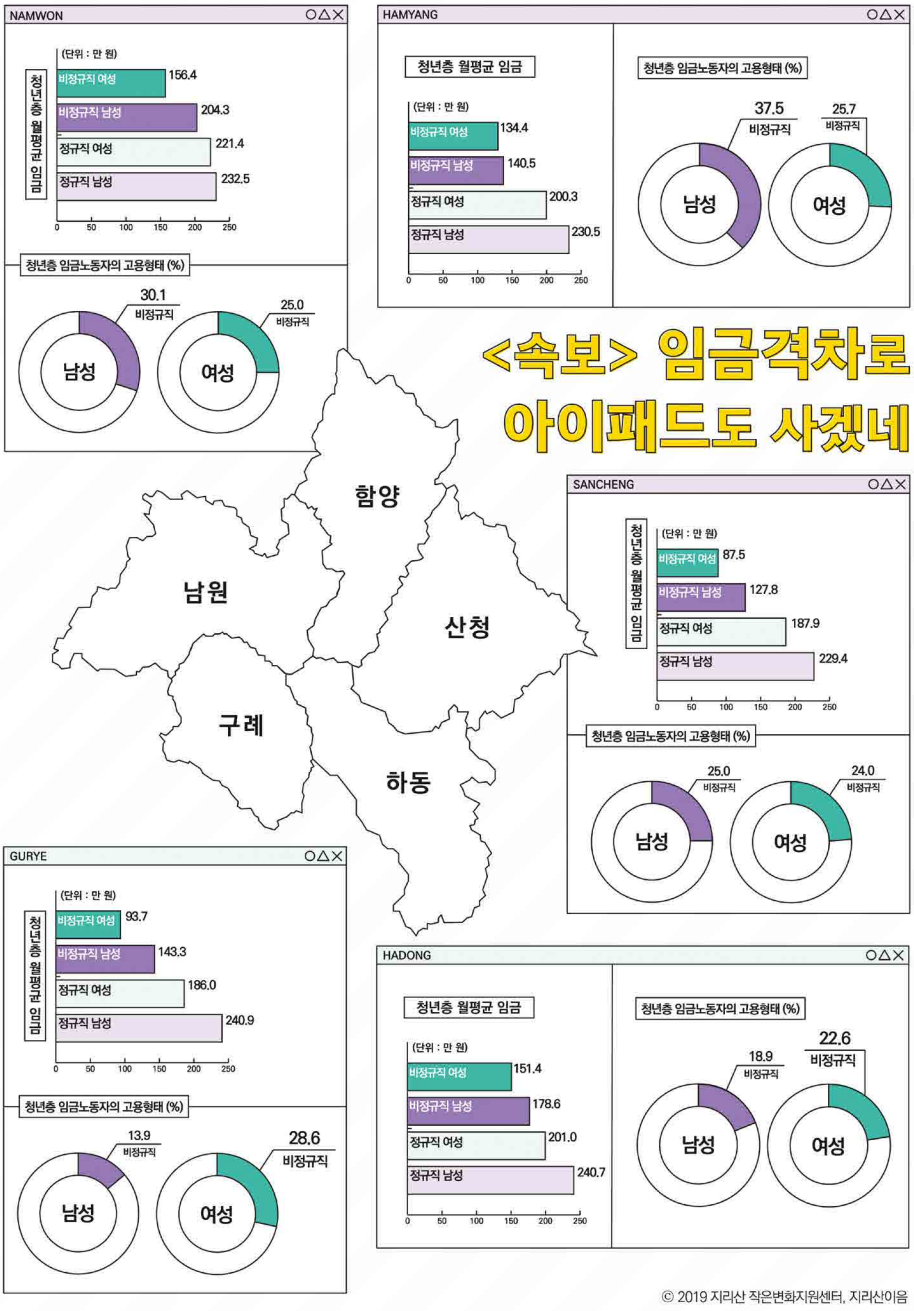
청년인구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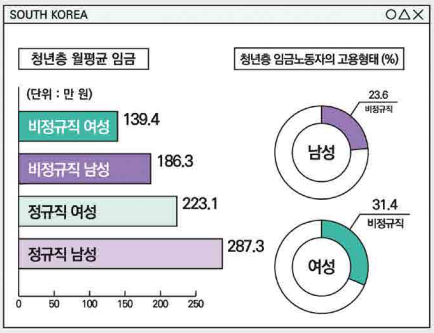
※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주민등록인구현황

© 2018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속보> 임금격차로 아이패드도 사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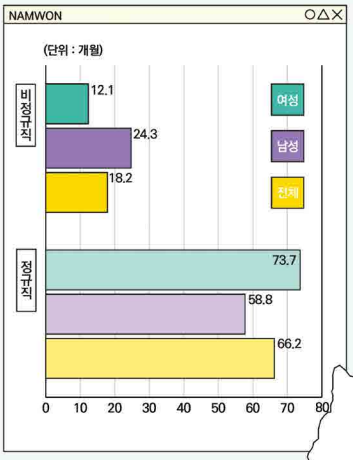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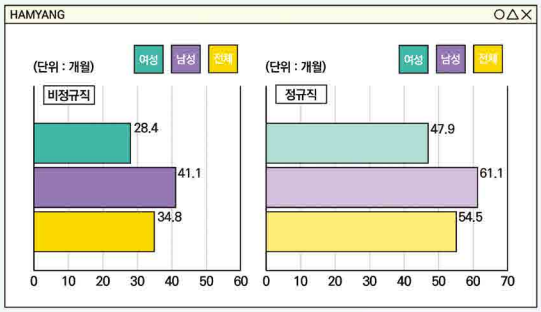
© 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더하는 말]

1.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A형)을 분석했습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입니다.
2. 본 자료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는 19~39세에 해당합니다.
3.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임시일용직만 파악되고, 시간제와 파견·용역·호출·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기간제, 임시일용직 2가지 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정규직으로 정의합니다.
4.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본 통계자료가 포함된 「2018 지리산권 청년기본현황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본 인포그래픽은 요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작은 조사 지원사업]이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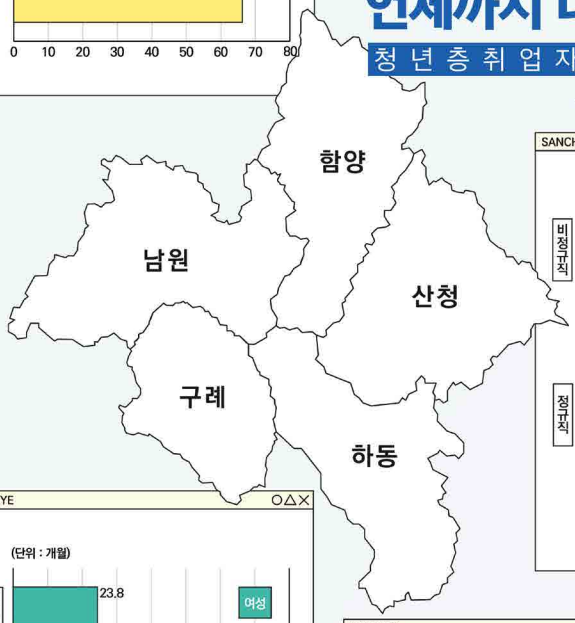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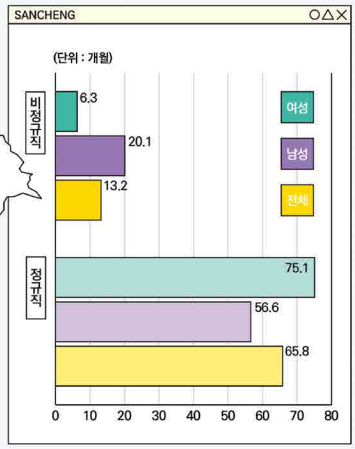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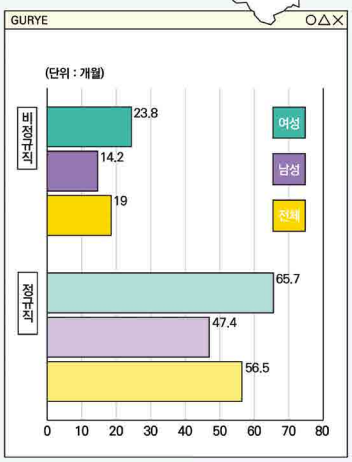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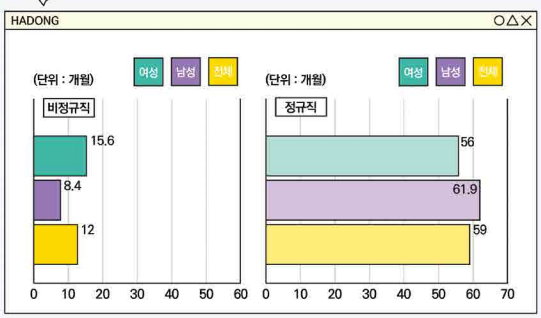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근속기간

짧으면 6개월 9일, 길면 6년 3개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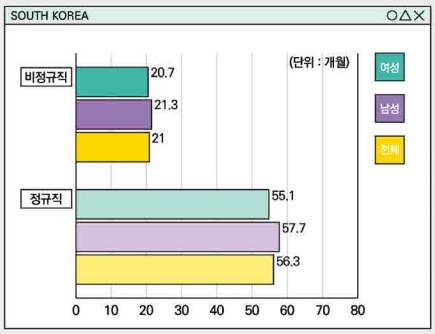








© 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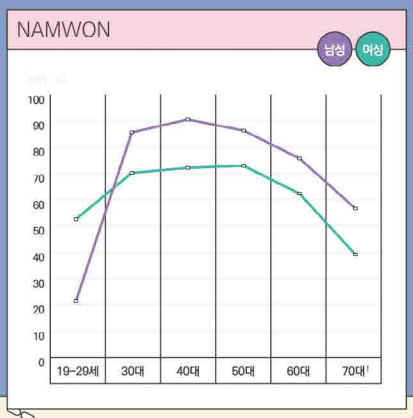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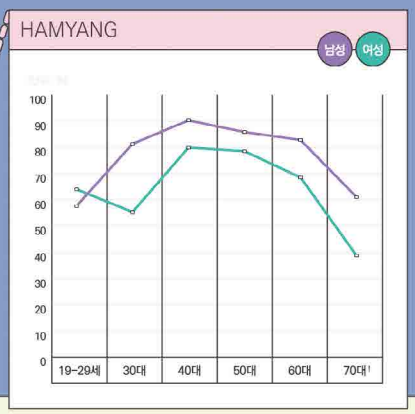
[더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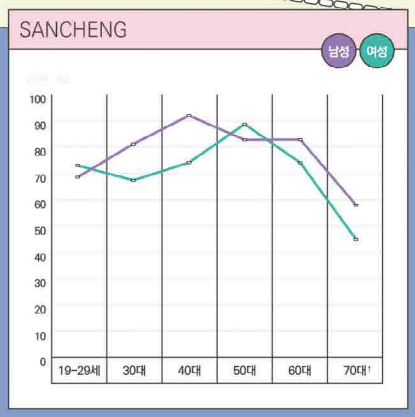
1.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A형)을 분석했습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입니다.
2. 본 자료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는 19~39세에 해당합니다.
3.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임시일용직만 파악되고, 시간제와 파견·용역·호출·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기간제, 임시일용직 2가지 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정규직으로 정의합니다.
4.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본 통계자료가 포함된 「2018 지리산권 청년기본현황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본 인포그래픽은 요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작은 조사 지원사업]이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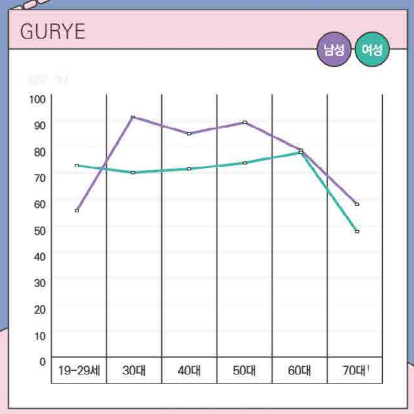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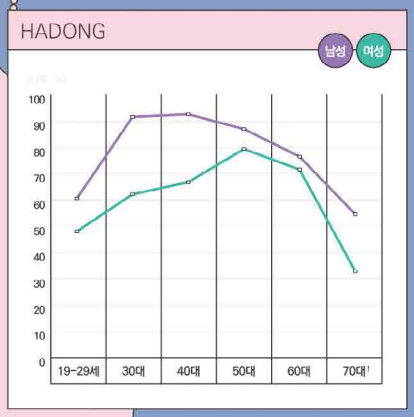
성·연령별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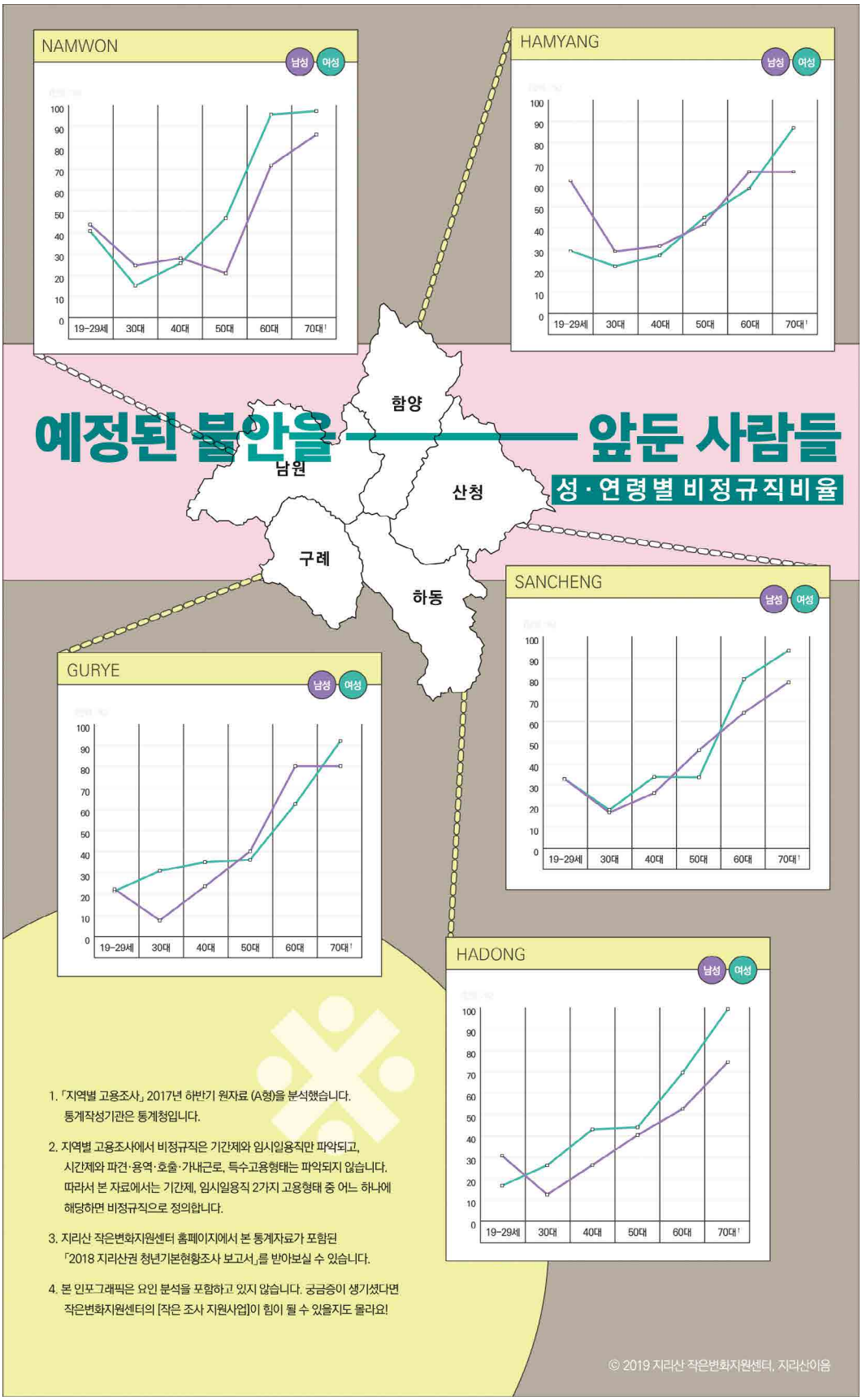


1.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A형)을 분석했습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입니다.
2.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본 통계자료가 포함된 「2018 지리산권 청년기본현황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본 인포그래픽은 요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작은 조사 지원사업]이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 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예정된 불안을 앞둔 사람들

성·연령별 비정규직비율



1.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A형)을 분석했습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입니다.

2.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임시일용직만 파악되고, 시간제와 파견·용역·호출·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기간제, 임시일용직 2가지 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정규직으로 정의합니다.

3.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본 통계자료가 포함된 「2018 지리산권 청년기본현황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본 인포그래픽은 요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작은 조사 지원사업]이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 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전라남도 구례군

전체인구 24,420
청년인구 3,710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1.6%	15.1%
고령인구비율	15.6%	32.8%
평균연령	43세	51.9세

여성
남성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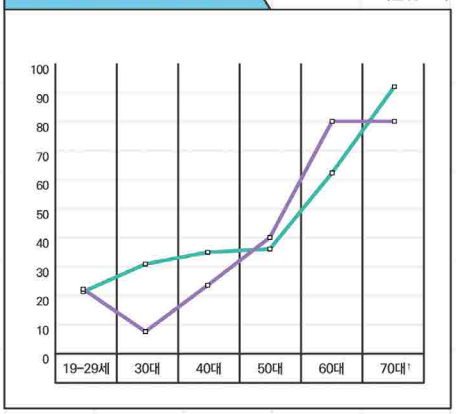
- 비정규직의 범위 : 기간제 또는 임시일용직
- 청년의 연령범위 : 19세~39세
- 통계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성·연령별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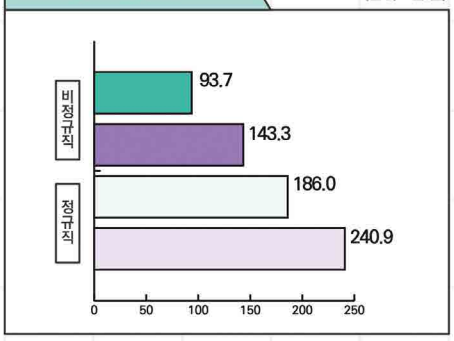
성·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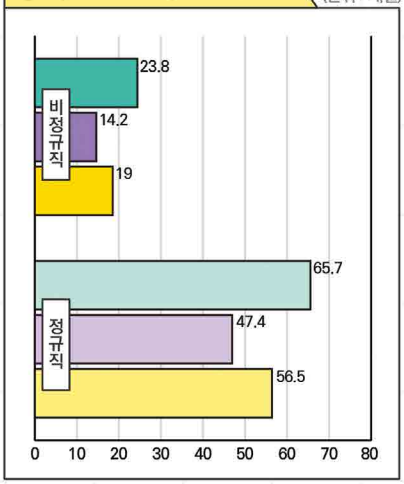
청년층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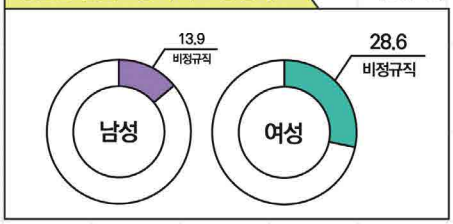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

(단위 : 개월)



청년층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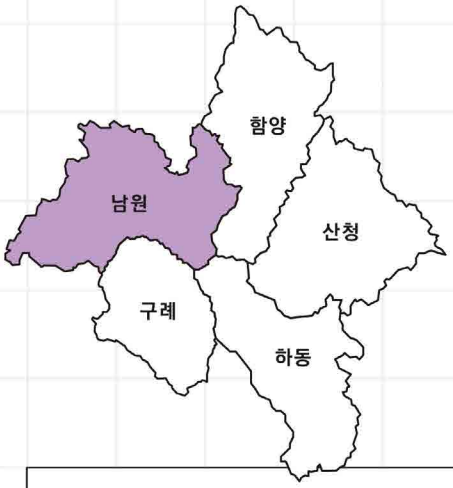


전라북도 남원시

전체인구 73,282
청년인구 14,555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7.1%	18.3%
고령인구비율	20.5%	26.0%
평균연령	38.5세	47.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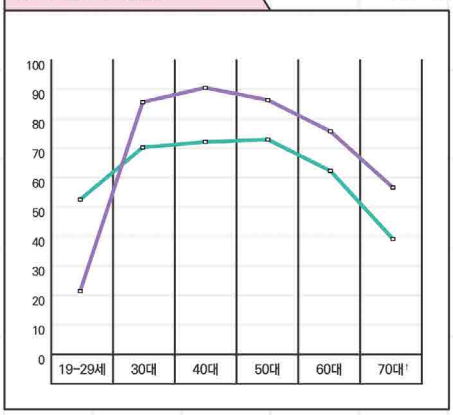
여성
남성
전체



- 비정규직의 범위 : 기간제 또는 임시일용직
- 청년의 연령범위 : 19세~39세
- 통계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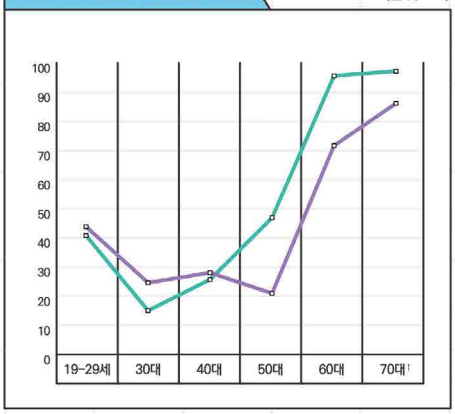
성·연령별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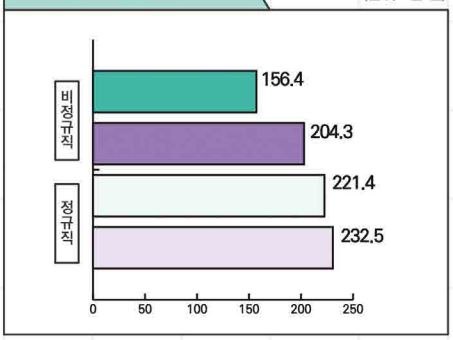
성·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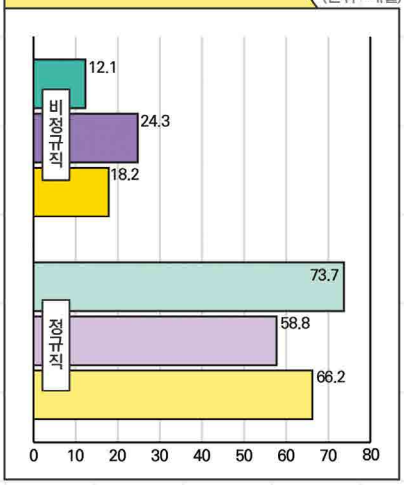
청년층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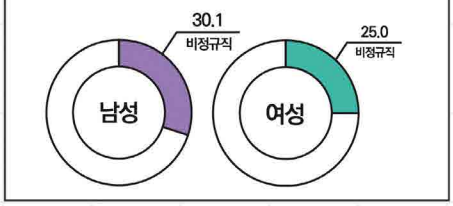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

(단위 : 개월)



청년층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

(단위 : %)



경상남도 산청군

전체인구 34,033
청년인구 5,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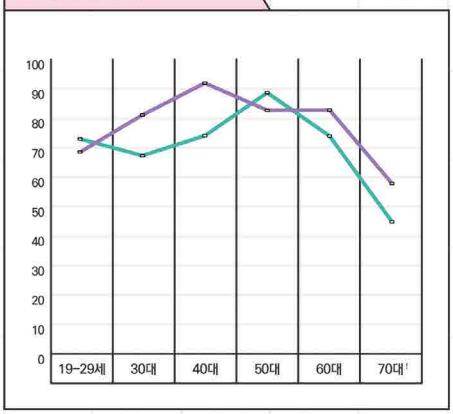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3.1%	15.0%
고령인구비율	21.8%	33.5%
평균연령	44세	52.7세

여성
남성
전체

- 비정규직의 범위 : 기간제 또는 임시일용직
- 청년의 연령범위 : 19세~39세
- 통계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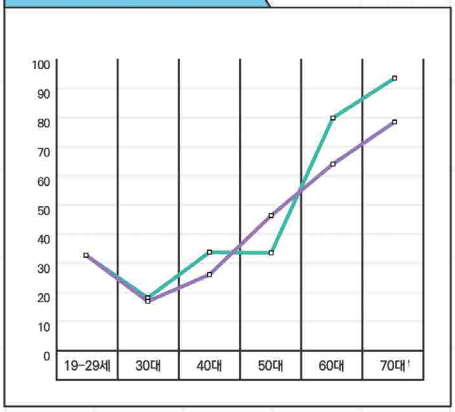
성·연령별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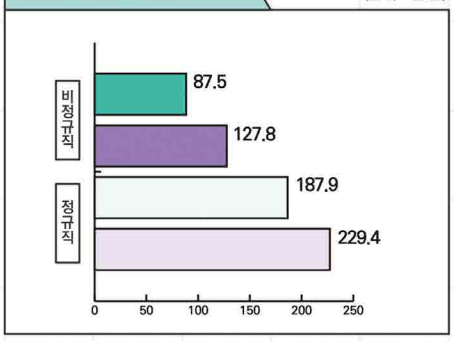
성·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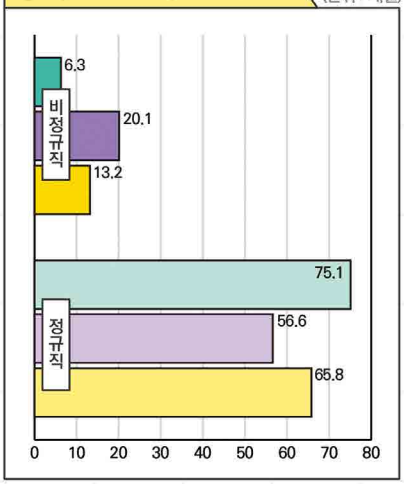
청년층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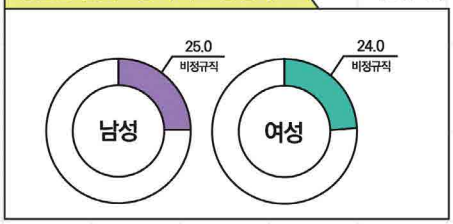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

(단위 : 개월)



청년층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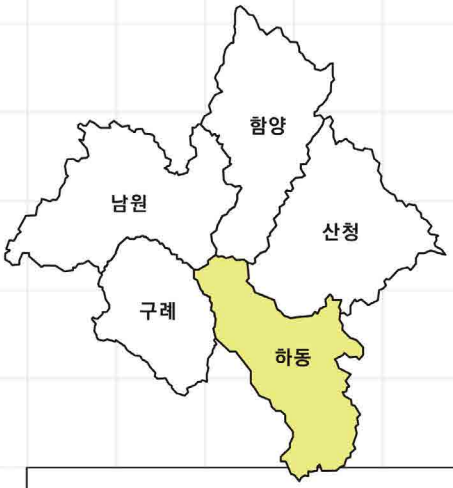


경상남도 하동군

전체인구 43,441
청년인구 6,687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2.7%	15.3%
고령인구비율	20.8%	31.7%
평균연령	42.5세	5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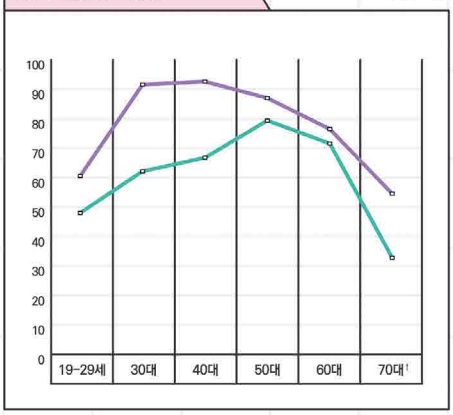
여성
남성
전체



- 비정규직의 범위 : 기간제 또는 임시일용직
- 청년의 연령범위 : 19세~39세
- 통계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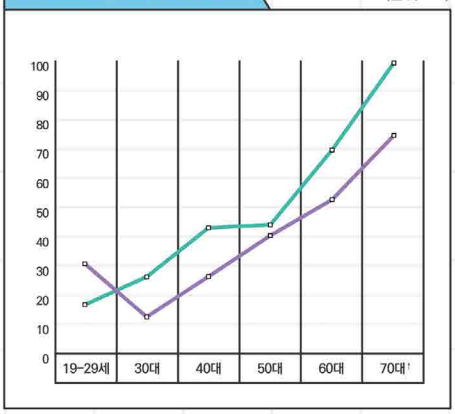
성·연령별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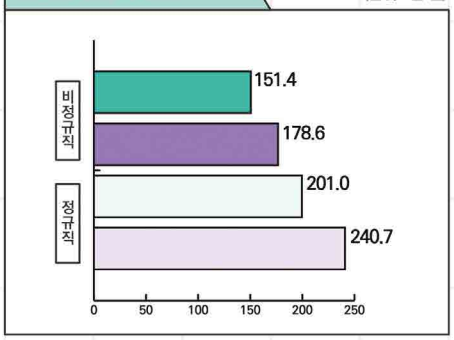
성·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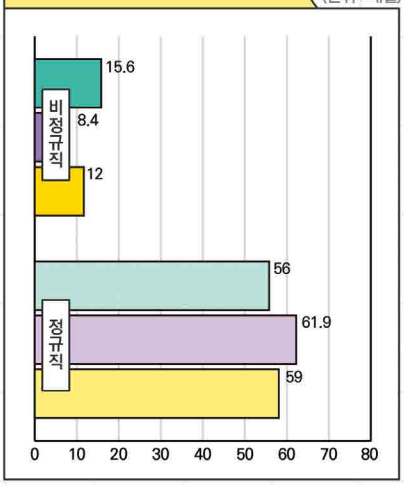
청년층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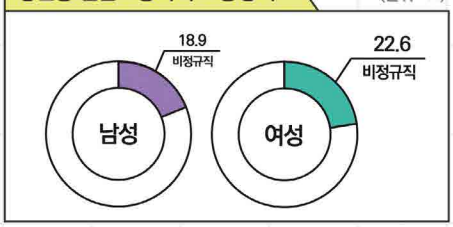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

(단위 : 개월)



청년층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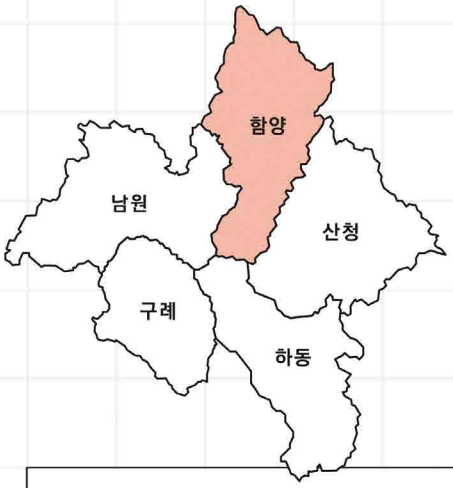


경상남도 함양군

전체인구 37,942
청년인구 5,619

	2000	2017
청년인구비율	21.3%	14.8%
고령인구비율	21.1%	31.8%
평균연령	43.5세	51.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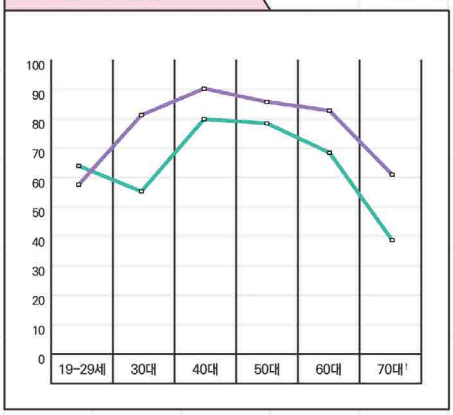
여성
남성
전체



- 비정규직의 범위 : 기간제 또는 임시일용직
- 청년의 연령범위 : 19세~39세
- 통계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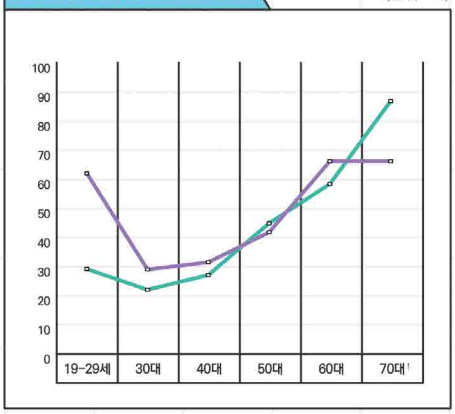
성·연령별 고용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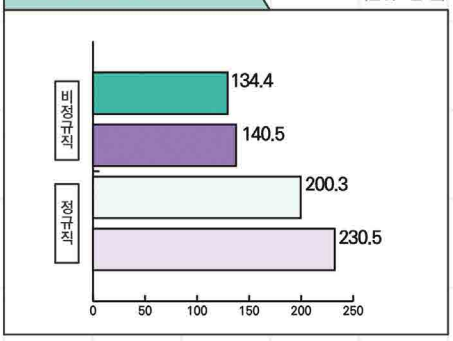
성·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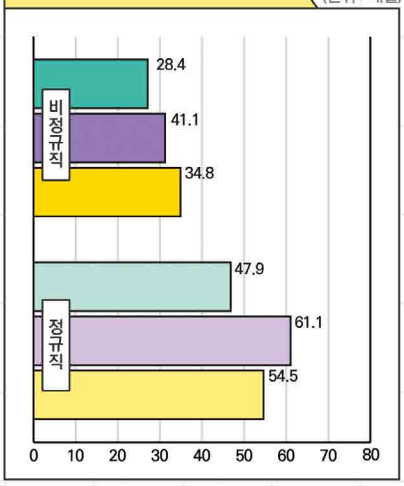
청년층 월평균 임금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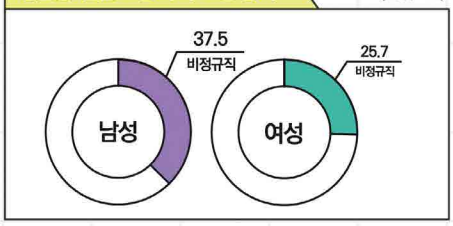
청년층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

(단위 : 개월)



청년층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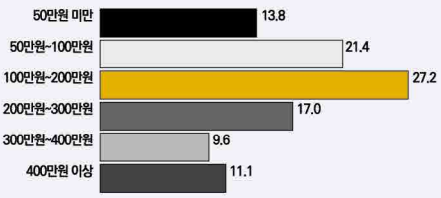
가장 적게 벌고 가장 적게 쓰는 '이 집'

2018 구례군 사회조사보고서 전격해부 가구소득과 가구소비

표본추출 | 조사원 방문 | 가구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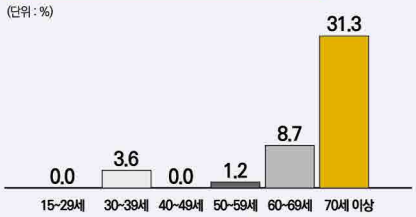
들어오는 돈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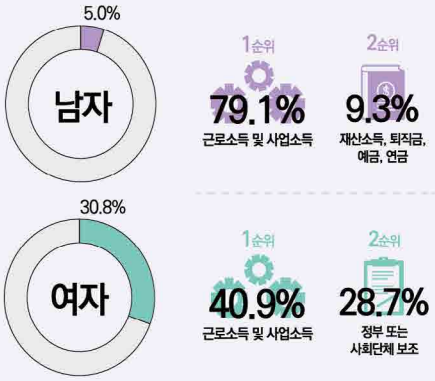


연령별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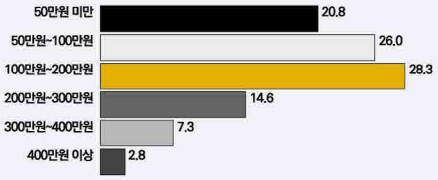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 / 성별에 따른 주된 소득



-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35.2%, 100만원~200만원이 27.2%, 200만원~300만원이 17%로 나타난다.
- 70세 이상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으며, 해당 연령대의 67.3%가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주된 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비율이 79.1%, 여성인 경우 40.9%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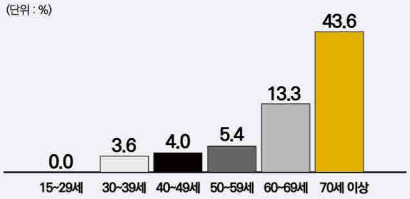
나가는 돈

월평균 가구소비 (단위 : %)



연령별 월 소비가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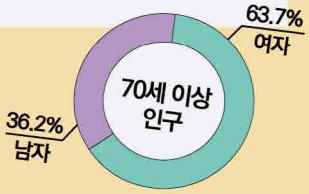
(단위 : %)



거주지역·성별 월 소비가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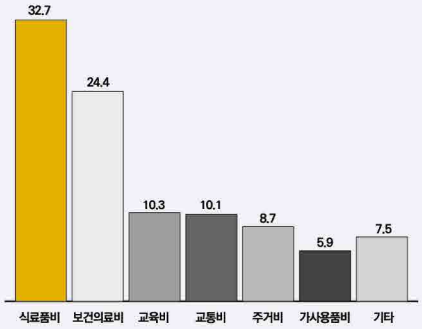
- 월평균 가구소비는 100만원 이하가 46.8%, 100만원~200만원이 28.3%, 200만원~300만원이 14.6%로 나타난다.
- 월 소비가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70세 이상의 경우 43.6%에 달한다. 50만원~1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7%으로, 합산하면 77%를 넘는다.
- 월 소비가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읍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전체 6,499명
남자 2,357명
여자 4,142명
(2017 기준)



부담되는 돈

부담되는 소비 (단위 : %)



- 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가구가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주거비가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 '70세 이상' 응답자 집단과 '여성' 응답자 집단의 통계에서는 많은 유사성이 나타나는데, 노년 여성 1인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이는 사별 혹은 이혼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가구에서 남성을 가구주로 여기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주지역·성·연령별 부담되는 소비

	1순위	2순위	3순위
읍	33.6% 식료품비	16.2% 주거비	15.3% 보건의료비
면	32.1% 식료품비	30.2% 보건의료비	11.6% 교통비
남	34.9% 식료품비	16.2% 보건의료비	13.7% 교육비
녀	40.5% 보건의료비	28.4% 식료품비	11.4% 교통비
70세 이상	46.0% 보건의료비	33.2% 식료품비	7.3% 교통비

ⓒ 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다가온 미래, 노인과 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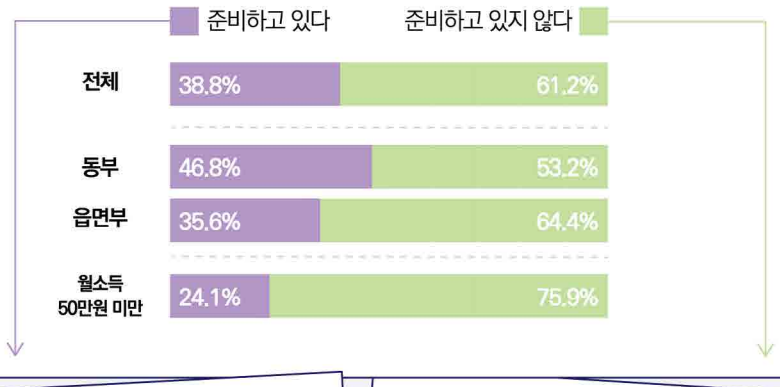
2018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전격해부

노후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또는 준비가 되어있으십니까?)

◇ 동부 거주자의 '준비하고 있다' 응답자 비율은 읍면부에 비해 11.2%p 더 높으며,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24.1%라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전체 응답자 중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통계에 비해 21.4%p 증가했다.

전연령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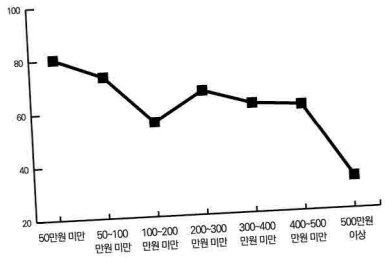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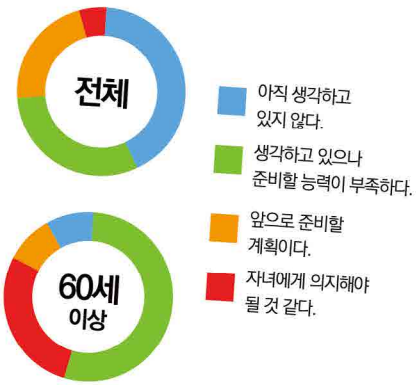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전체	58.2% 국민연금	53.5%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월 소득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1순위 비율

(단위 : %)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2018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 전격해부

◇ 노후 생활비 준비 방법에 대한 문항에서는 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1순위 선택 비율이 줄어들고,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계획에 대한 문항에서, 60세 이상 응답자는 '생각하고 있으나 준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로 제일 많았다. 또한 '자녀에게 의지해야 될 것 같다'는 28%로, 60세 이상에서만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했다.

오늘날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전체	50.8% 건강문제	41.5% 경제적 문제
동부	63.1% 건강문제	43.6% 경제적 문제
읍면부	53.9% 경제적 문제	54.9% 건강문제

65세↑ 응답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으십니까?

1순위	2순위
64.1%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27.9%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 본 인포그래픽에서 1순위, 2순위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각 1순위를 묻는 문항에 대한 1순위 응답, 2순위를 묻는 문항에 대한 1순위 응답에 해당합니다.

◇ 통계자료 출처 : 남원시 홈페이지, 2018 남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 20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지리산이음

관련 자료들은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홈페이지 아카이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인사말

지리산 둘레길처럼 지리산 사람들과 마을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가보자! 이곳 지리산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세계를 연결하자! 처음 마을카페 토닥과 지리산이음을 시작할 때의 즐거운 상상이었습니다. 이 상상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워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로 시작한 '작은변화의 실험'은 이제 2020년 좀 더 성장하려고 합니다. 응원과 지지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리산이음 이사장 아신

지리산 종주, 노고단, 반달곰, 국립공원. 2013년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리산 키워드입니다. 헌데 개미스폰서에 오른 '지리산문화공간 토닥'에 손을 보태고, 토닥 모내기 소풍에 참가하면서 지리산에 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내가 사는 마을과 사람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역으로의 변화, 생활 속 삶에 녹아들어 있을 때야 비로소 궁극의 닿을 수 있음을 지리산에서 배웁니다.

아름다운재단 지역사업팀장 홍리재희

제 평생 지리산을 가까이 두고 살며 일할 거라고 상상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연했던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 천왕봉을 바라보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에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즐겁고!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은 각자의 즐거운 상상이, 모두의 현실이 되도록, 다같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가 쭈이

지난 2년 동안 지리산 현장에서 만난 작은변화는 결코 작다고 표현할 수 없는, 크고 의미있는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를 곁에서 경험할 수 있어 활동가로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웃으로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지역사업팀 최지은

5년 쯤 어린 저에게 "너 2019년에 지역사회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홍보마케팅할 거야. 게다가 너 워드보다 일러스트레이터 많이 쓴다."고 귀띔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변화는 찾아와서 저는 지금 생각도 안해 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즐겁고 가치있게 여겨지는 순간도 종종 있는데 문득 생각할 때마다 놀랍게 느껴집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또는 옆 동네에서는 무슨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잘 들려오도록 하고 싶어요. 2020년은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나 각자의 작은변화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해가 되면 좋겠네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가 누리

6개월이지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와 함께 일 할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요.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저의 작은 변화가 센터를 만나면서 시작되었고, 센터를 떠나면서 또 다른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 같아요. 2020년은 더 빛나는 작은변화지원센터가 되길 응원할게요!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

어요. 함께 지리산의 작은변화를 위해 홧팅!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가 온빛

아름다운재단이 지역사업을 한다는 것도, 지리산권 5개 시군을 잇는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산내라는 지역에서 1년을 살아보는 것도, 연중 이렇게 많은 지역을 여러 번에 걸쳐 출장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물음표로 시작된 그 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만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느낌표로 바꾸어 가는 그 과정, 앞으로 더 많은 물음표가 생기겠지만, 그만큼 많은 느낌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지역사업팀 박정옥

어쩌다 활동가가 되었지? 라는 질문에는 늘 따라오던 생각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였습니다. 내 삶이, 친구들의 삶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의, 마을의, 친구들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선에 드디어 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020년에는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가 하무

지리산 지역의 소소한 변화들을 꿈꾸는 오지라퍼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고민들을 함께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만만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가 나비

한국 사람들에게 지리산은 사시사철 빛깔을 달리하는 둘레길도 마르지 않는 섬진강도 자리한 아름다운 곳이라는 매력 이외에 상당한 아픔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움을 떠올림과 함께 막연한 부채감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 합류해서 처음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사업을 접했을 때, 그래서 낯익음과 낯설음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그 지리산에 작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공간으로서 지역을 바라보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옛 지혜와 오늘의 향기를 미래의 공존으로 엮어가시는 활동가 분들이 계시기에 동네도 공동체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평화, 지리산의 사계, 지리산의 작은 변화를 응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권찬

처음은 변화를 지원하는 조직을 지리산에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에 좋은 영향이 되는 시민사회를 위해 참 많은 지원을 해왔고, 지리산에서도 좋은 시민사회의 토양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작은변화' 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작은변화' 라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 문장을 우리의 비전으로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2년의 과정은 우리의 비전을 학습하고 확인하는 실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웃이 이웃을 돕고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더 많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센터장 임현택

2018-19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활동보고서

한발짝

발 행 일 2020. 2.
발 행 처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
전화번호 (063) 635-9484
팩 스 (063) 635-9485
이 메 일 center@jirisaneum.net
홈페이지 www.jirisanchanges.net